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2011. 8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2011. 8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
임강택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임순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한기범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분야별 동향 분석	2
1. 정치 분야	2
2. 외교 분야	8
3. 대남 분야	12
4. 경제 분야	18
5. 사회·문화 분야	29
6. 군사 분야	38
III. 분야별 정세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41
1. 분야별 정세 전망	41
2. 정책적 시사점	50
부록. 북한방송 주요 논조(분야별 구분표)	53

표 목 차

<표 1> 2011년 1~2월 중 북한의 대화공세	14
<표 2> 5.30~7.10 기간 북한의 대남 비난·위협 동향	17
<표 3>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조치	18
<표 4>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24
<표 5> 주요 시장의 가격 변동 추이	25

I. 문제 제기

- 2011년 상반기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돌출행동도 나타남.
 -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대남 대화공세를 개시하고, 우여곡절 끝에 2월 8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기도 하였음.
 -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모니터링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식량지원을 요청
 - 김정일은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
 - 방중 직후 북한은 5월 초에 있었던 남한과의 비공개 접촉을 폭로함.

- 북한은 체제결속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한편 미국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함.
 - 대남 관계는 최소화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음.

- 한편, 1월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과 북한의 농축 우라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남북한 회담과 6자 회담의 재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함에 따라 2010년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구도를 벗어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됨.
 - 그러나 남북대화과 6자회담 재개 가능성부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임.

- 본고는 2011년 상반기 (1~6월) 북한 정세를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분야별 동향 분석

1. 정치 분야

가. 체제결속 및 주민통제 강화

- 화폐개혁 실패와 식량사정 악화로 민심이반이 확산되고, 천안함·연평도 도발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중동 재스민 혁명이 발생하자 내부단속과 체제 결속 강화를 최우선시 함.
 - 사회일탈 현상이 만연되고, 반체제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
 - 주민탈북이 일반화되고, 고위층도 가세하고 있는 형국

- 체제단속과 민심수습차원에서 엘리트 숙청 및 규율 강화
 - 사회통제 실패 책임을 지고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을 해임하고 리명수 국방위원회 행정국장 임명
 -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지고 박남기 당재정계획부장 처형
 - 부패 등을 이유로 류경 보위부 부부장 처형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에서 리영호(軍총참모장), 문경덕(평양시黨 책임비서) 등은 “모든 부문·단위에서 국방위원회의 결정과 명령을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우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 방식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국방위주의 우리(北)식 국가기구체계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면서 기강잡기에 나섬(4.8, 중·평방·중통).

- 정권실세들이 동원되어 군중대회를 열고, 특히 청년부문에 대한 통제 및 선동 작업을 강화

- ‘선군청년총동원대회’에 김영남, 최영림, 김기남, 최룡해, 리영철 (청년동맹1비서) 등이 참가하여 “청년들은 당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을 관철해나가는 열혈 투사가 되어야 한다”고 선동(2.26, 중통·중방)
 -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에 최용해(黨 비서) 등이 참가하여, “김정 일을 수반으로 하는 黨 중앙위원회를 옹호 보위하는 제일근위대, 제일결사대”로서 “청년영웅”이 될 것을 강조(4.11, 중통·평방)
- 외부정보 및 소위 비사회주의 요소 침투 방지에 주력함.
- 북한 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53만 명에 이르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이 우려되자 정보유통 금지조치를 강화
 - 노동절 기념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자로 나선 최영림(내각 총리)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고 조선혁명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5.1, 중통·중·평방)
 -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에 대응하는 무기’라고 강조하며, ‘자본주의 황색바람’ 등 외부사조 유입의 차단에 주력(5.5, 노동신문)

나. 김정은 후계구도와 권력 재편

-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과 2010년 당규약 개정을 통해 세습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완료했고,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사실상 후계구도를 공식화함.
- 당대표자회의 개최를 통해 당조직을 정비함으로써 당 중심으로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함.

- “모든 분야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1.8, 평방)
- 금년에도 김정은의 후계작업은 이상없이 진행 중이나 북한은 김정은의 급작스러운 부상보다는 김정일 권력 누수를 방지하면서 후계 지위 안착에 주력하는 신중한 행보를 보임.
 - 올해 신년 공동사설은 후계자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채 김정일 중심으로 서술되는 등 김정일의 통치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과시함.
 - * “21세기의 새로운 연대들도 로속하고 세련된 김정일 정치의 위대한 승리의 년대로 계속 빛날 것”임을 강조함.
- 김정은은 김정일 현장지도 등에 동참하여 대중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함.
 - 평안북도 내 공장들 현지도에 동참(1.14, 중통)
 - 대관유리공장 현지도에 동참(1.15, 중통)
 -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관람 및 「감사」 전달식에 동참(2.10, 중통·중방)
 -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2.15, 중통·중방)
 - 당 중앙위, 당 중앙군사위, 국방위 주최 경축 연회 참석(2.17, 중방)
 -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개관공연 관람(2.26, 중통)
 - 북-러 예술인들의 합동공연 관람(3.7, 중통)
 - 신설 국립연극극장에서 경희극 ‘산울림’ 관람(3.27, 중통·중방)
 - 조선인민군 종합체육관 개관식 참석(5.4, 중통)
 - 방북 중국공산당 대표단(6.10~6.13)과의 김정일 접견 및 오찬에 동반 참석(6.13, 중방)

- 당조직 정비를 통해 장성택, 김경희, 이영호, 최용해 등 김정은 후견 세력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으로써 정치적으로도 세습을 준비함.
 - 조직 정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력해진 군부가 외화벌이 사업 등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내외 정책에 깊숙이 개입함.
 - 금년 6월 6일 당정치국 확대회의를 제외하고는 당-국가체제의 전통적인 통치 시스템이 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7.24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등 국가기관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

- 김정은 세습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가계의 전통 강조
 - 당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유훈대로 당건설과 활동을 진행한다”며 김정일의 ‘김일성 유훈통치’와 ‘조선노동당은 김일성당’임을 강조(1.14, 중통·노동신문)
 -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대성”을 역설하며, “우리(北)의 혼연일체는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계승되는 영원한 통일체”이며, 이는 “혼연일체의 대가 굳건히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강조(3.2, 중통)
 - 김정일의 “일심단결의 광폭정치는 전당, 전군, 전민이 철통같이 뭉친 가장 위력한 단결”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계승되는 불패의 일심단결”이라고 강조(3.20, 중통·노동신문)

다. 권력 암투 조짐

- 후계체제 구축을 둘러싼 권력재편 과정에서 엘리트들과 기관들의 부딪침이 발생하면서 갈등요인이 발생함.

- 2011년 초 류경 보위부 부부장이 처형됨으로써, 2008년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 나타난 다수의 엘리트들의 숙청과 의문사 등 권력 암투 징후가 계속됨.
 - 2009년 이제강 당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교통사고 사망
 - 2009년 4월 말 이용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심장마비 사망
 - 2009년 5월 중순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 고령을 이유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
-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당은 외부(중국)와의 경협과 남북대화를 통한 지원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음.
-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 강경파는 남북관계 개선에 무관심하며 김정은을 앞세워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자 함.
- 김정일이 정책결정을 완전히 통제하기 보다는 대남 대화론자와 군부 강경파의 힘겨루기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상황은 북한의 대남 강공책은 군부 강경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여겨짐.

라. 후계구도 옹위 및 당 강화 구도 하에서의 선군정치 선전

- 김정은 후계계획이 공식화되면서 이전의 선군정치 일변도 정책은 수그러드는 양상임.
 - “조국의 강성변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은 오직 선군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선전(1.29, 중통·노동신문)

- “수령결사옹위는 백두의 선군전통의 핵”이라며 전민(全民)은 “대를 이어 수뇌부 결사 옹위 및 선군전통 계승”할 것을 주문 (4.25, 중통·노동신문)

마. 통치체제 정비 및 인사변동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개최(4.7, 중통·중방·중앙TV)
 - 내각의 2010년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보고: 최영림 내각총리)
 - 2010년 예산 집행의 결산 및 2011년 예산(보고: 박수길 내각 부총리 겸 재정상): 2010년 예산수입 101.3%, 지출 99.9% 집행, 2011년 예산수입 전년대비 107.5%, 예산수입 108.9% 증가
 - 인선 및 조직 정비 (△전병호 국방위 위원 소환, 박도춘 보선 △인민보안부장 리명수 임명 △법제위원장 장병규 보선 △리태남 내각부총리 신병관계로 해임)
- 조선노동당 중앙궐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6.6, 중통·중방)
 - 김정일의 비공식 방중(5.20~26) 결과 통보 및 토의
 - ‘조직정비’의 일환으로 다른 직무에 조동(調動: 파견)된 홍석형을 당중앙위원회 비서직에서 소환(6.6, 중방)
-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7월 24일 실시
 -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통치 기능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 재작년·작년에 이어 중앙 정부기관, 중앙 당 정비에 이어 지방 기관의 정비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

- 인사개편 단행
 - 김창식 농업상이 물러나고 리경식 농업상이 재임용(1.4, 교도통신)
 - 당중앙위 제1부부장 ‘박정순’ 사망(1.22, 중통·중방)
 - 리무영(화학공업상) 내각부총리 임명(5.31, 중통·중방)

2. 외교 분야

가. 김정일 방중과 북·중관계 강화 노력

- 김정일은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북·중관계 강화를 위한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줌.
- 이번 방중은 작년 두 차례의 방중에 이어 일년새 세 번째 방중으로 김정일의 잦은 방중은 경제적 지원과 신형 전투기 등 무기지원을 확보하고 북·중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 김정일은 방중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경제적 지원과 신형 무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방중을 ‘불멸의 대장정’이라고 규정하고 축하공연까지 여는 등 방중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함.
 - 반면, 중국 국방부장 량광레는(6.5)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북한에 핵개발과 긴장조성을 하지 말 것과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말함.

- 김정일 방중 직후 6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발계획」을 추진하였고 6월 7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리수영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개최되었음.
- 북한은 중국 공산당 창건 70돌(7.1)을 계기로 사진 전시화와 영화상영주간 개막식 등을 개최하고, 북·중 우호조약 50주년(7.11)을 맞아 양국은 고위층의 교류를 확대하는 등 북·중관계 강화 노력을 지속함.
 -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
 - 명젠주 국무위원 겸公安부장이 금년 2월 방북, 진종홍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 대표단 일행이 5월 방북, 리위안차오 조직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6월 방북, 장더장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대표단이 7월 11일 방북
- 북한이 북·중 우호조약 50주년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에 대한 강조를 통해 중국의 대북 지원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것임.

나. 대미 접근 탐색

- 북한의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는 1월 중순 뉴욕에서 로버트 킹 대북 인권특사를 만나 대규모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분배 모니터링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표명하였음.

- 미국 역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북한과 대화와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함.
- 북한의 대미 접촉은 단기적으로 식량지원 확보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 북한은 2010년 1월 11일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11월 9일 원심분리기 수백기를 공개한 것도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음.
- 금년 초 대남 대화공세 속에서 북한은 ‘현사태 타개의 근본열쇠-조미평화협정’이라는 1월 11일자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지난해 유관국들이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요구에 응했다면 연평도 포격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냄.
- 5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빌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가 방북하였고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 역시 북한의 식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북함.
 - 이 밖에도 북 태권도시범단의 방미(6.4~6.21)
- 한편, 한·미·일은 3단계 비핵회담의 첫 단계로서 남북한 핵회담을 주장하는 데 반해, 북한은 남북회담을 형식적으로 통과하고 미·북회담을 하자는 입장임.
 - 중국은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다. 전방위 식량 지원 요구

- 북한은 중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폴란드 등 가능한 모든 나라에 식량지원을 요청하라고 재외공관에 지시함.
 -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까지 식량지원 요청

- 북한의 2010년 식량생산은 예년과 비슷한 약 4백만 톤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식량지원 요구의 배경은 몇 가지로 추정됨.
 - 내년도 정치행사를 위한 비축미 확보 차원이라는 해석
 - 남북관계가 긴장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동원이 빈번해지고 이들에게 식량 배급이 필요
 - 전체량은 비슷하나 부정부패와 유통질서가 문란해 지면서 부족 현상이 증폭
 - 시장에 의존하는 일반 주민들 보다는 배급에 의존하는 군인들이 식량부족으로 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지연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7월 4일 1천만 유로 상당의 긴급 대북식량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함.

라. '조선반도 비핵화' 강조

- 박의춘 외무상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비동맹 외무장 회의(5.25)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북 평화협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전제조건 없는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주장함.

- 북한은 일본의 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피해에 대해 자세히 보도함.

- 김정일은 재일동포들에게 지진 피해 위문금 50만 달러 전달하고(3.24, 중통), 김영남은 총련의장 서만술에게 위문 전문(3.21, 중통·평방)

3. 대남 분야

□ 상반기 전반을 볼 때, 북한의 대남태도 3단계로 악화

- 상반기 중에 북한의 대남태도는 적극 대화공세 → 위협과 기대 → 강경위협 3단계로 변화
 - 연초부터 2월 상순까지는 적극적으로 당국대화를 요구
 -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2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는 적극적인 대화요구를 접고 수시 우리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도, 비밀접촉(5.9)에 나서면서 간헐적으로 ‘대화 의지’를 선전(5.3)
 - 그러나 5월 말에는 ‘사격 표적지’ 문제를 구실로, 6월 말에는 다시 전방부대의 ‘대북구호’를 구실로 “이명박 정부와 상종불가”를 공언하면서 “전면적 군사보복” 등 위협 수위를 크게 고조
- 연초에는 경제적 실리 확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중적인 대화공세를 전개하다가, 우리 정부가 원칙을 견지하자 위협과 관망을 병행하였으며, 우리 일선부대가 체제 문제를 제기하자 극단적으로 반발
 - * 경제실리보다 ‘체제권위 보존’이 최우선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권력세습이 추진되는 과도기에 보수적인 정책기조가 지배하면서, 충성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

가. 연초 40일간 집중적으로 대남 대화공세 전개

-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2월 9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있기까지 40일 동안 다양한 형태로 대남 대화공세를 전개
 - 당 통일전선부를 제외하고 조평통, 아태위, 인민무력부 등을 동원, 당국회담을 비롯해 적십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회담은 물론 군사회담과 국회접촉까지 제기
 - 이와 함께 거의 매일 선전매체를 동원, 그들의 대화제의를 “난국 타개를 위한 획기적 조치”라면서 “무조건, 조속한 화답”을 촉구
 - 군사실무회담(2.8~9) 결렬이후에는 다시 대남 비난을 강화

- 북한의 대화공세는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에 집중된 점, 대화의 ‘진정성’까지 강조하면서 애원에 가깝게 우리의 호응을 재촉한 점, 김정일의 ‘결단’에 따른 것임을 암시한 점이 특징
 - 그들의 대화제의를 “획기적인 결단, 애국애족의 대응단”(1.28, 조국전선 호소문)이라고 주장 (신화통신은 북한의 대화요구가 “충동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며, 영도자의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 논평)
 - 조선신보도 신년 공동사설과 연합성명에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통일과 번영의 연대로 될 것”이라는 구절은 “영도자의 구상과 의지를 집약한 호소”라고 해석(1.26, 조선신보)

- * 2010년 연말쯤 북한 지도부에서, ‘2012년 강성대국 문패를 거는 행사를 위해 남북대화를 추진, 축제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내부 문제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하자’고 결론내린 것으로 추정

<표 1> 2011년 1~2월 중 북한의 대화공세

제의방식	주요 제의내용
1.1 신년 공동사설	○ 남북 간에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한다” 주장
1.5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	○ 4개항의 ‘중대제안’ 발표(1.5, 중통·중방) ① 남측 당국,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 제의 ② 북과 손잡으려는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 ③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 사업 등 모든 문제 협의 가능 ④ 상호 비방 중상 및 자극행위 중단 ○ 특히 “당국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
1.8 조평통 대변인 담화	○ 당국회담을 비롯 적십자, 금강산관광, 개성공업지구 회담재개 제의 ○ 판문점 남북연락채널 재개, 남북경협협회사무소 동결해제 통보 ○ “우리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할 것도 없다”고 주장
1.10 북 아태위, 적십자사, 경협사무소 통지문	○ 당국회담 실무접촉, 적십자회담 일정·장소 제시 ○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1.12), 경협사무소 정상운영 통지
1.20 인민무력부장 명의 공개서한	○ 우리 국방장관에게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 제의
1.28 조국전선 호소문	○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형식으로 당국대화를 촉구하면서,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사이의 의원 접촉도 제기
1.29 북 군사당국 통지문	○ 우리의 2월 11일 군사 실무회담 역제의에 대해 회담날짜를 “2월1일로 앞당기자”고 요구
1.31 북 아태위 통지문	○ 통일부에 “대화의 장애물들이 모두 제거되었다”면서 남북대화들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
2.2 최고인민회의 국회에 편지	○ 북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 사이의 의원접촉과 협상 제의 * 북 사회민주당, 아태평화위, 민화협, 6.15위원회 등도 우리 정당·단체들에 “남북대화 제안에 호응을 촉구”하는 편지 발송(2.3, 중통)
2.8-9 남북 군사 실무회담(판문점)	○ 2일간 6회 접촉. 고위급 군사회담 의제, 수석대표급 등 합의 실패. 북은 “천안함 사건은 특대형 모략극”이라 주장하면서 일방 철수

나. 군사실무회담 이후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도 관망

- 2.8~9 판문점에서 개최된 군사실무회담에서는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수석대표 급을 정하는 문제로 남북이 대립
 - 회담의제: 북한은 우리의 선결과제인 ‘천안함·연평도 사과’ 문제를 적당히 넘기려는 대신 대북 심리전 등 ‘쌍방의 도발로 간주되는 행위 중단’ 문제에 집착
 - 수석대표 수준: 우리가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을 제기한데 대해 북한은 차관급(인민무력부 부부장 혹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주장
 - 2월 9일 오후 북한이 다시 ‘쌍방의 군사적 도발’ 논의로 의제를 좁히는데 대해 우리가 거절하자 “천안함 사건은 철저히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철수

- 군사실무회담 결렬이후 북한의 대남태도는 표면상으로는 애걸조의 대화제의 공세는 사라지고 비난과 협박을 강화
 - 2.10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단 ‘공보’로 “상종할 필요를 안느낀다”고 주장한 이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장애가 남측의 ‘반북 대결 정책’에 있다면서 “철저히 계산, 심판”등으로 협박

- 그러면서도 ‘대화 의지’를 간헐적으로 선전
 - 서해 표류 북한주민 27명(31명 중 4명은 귀순의사 표시) 우선 송환 통지문(3.15)을 발송하고, ‘백두산화산활동 남북공동연구 제의(3.17, 중통·노동신문)
 - “남 당국은 과거 3년 간의 대북 적대정책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평화 변영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5.3, 노동신문)

- * 북한 군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도발을 해명하기 보다는 심리전 문제를 걸고 적당히 넘기려는 행태를 보임. 이는 군이 지도부의 결론에 따라 실무회담에 임했으나 애초부터 적극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
- * 이로 볼 때, 북한 지도부가 우리 정부의 과거와 다른 확고한 입장을 오판하고 있거나, 북한의 대화추진체계 상층부가 군사회담 실무자들을 제대로 관리·통제할 만큼 체계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 5월 말 이래 ‘표적지·구호’ 빌미로 대남 폭로·위협공세 강화

- 북한은 5.30 우리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한 이래, 2주 동안 연일 “군사적 보복행동 진입” 등으로 대남위협 수위를 극대화
 - 이례적으로 남북 비밀접촉(5.9) 사실을 폭로하면서, 정부·국방위원회·최고사령부 대변인을 동원한 ‘성명전’과 함께, 도별로 군민(軍民)대회를 개최하여 대남 “보복성전”을 위협
 - 김부자 초상화를 사격 표적지로 삼고 연이어 체제비난 구호가 등장한 것을 구실로 대남 강경세력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반증
- 북한이 정부·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적지와 대북구호 문제를 ‘특대형 도발’로 규정하면서, 남북관계의 ‘파탄’을 선언한 점으로 볼 때,
 - 대남 면에서는, ‘대화’(→경제실리 확보)의 미련을 버리고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여 남남갈등 조장과 반정부 투쟁 선동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
 - 내부적으로는 주민들 사이에 긴장분위기를 조성한 동원체제적 특성을 심화시켜 하반기 생산과 건설에 주민을 총동원하려는 의도(7.4 평양시 군민대회에서 청년동맹 제1비서 리용철은 “500만의 총포탄이 되고, 만수대지구 건설장에서 위훈을 창조할 것임”을 결의)

<표 2> 5.30~7.10 기간 북한의 대남 비난·위협 동향

비난형식	주요 비난·위협 내용
5.30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가 “베를린 제안의 진의를 북에 전달한 것처럼 소문 (5.19 청와대 대변인) 내고,” “수뇌부에 대한 비난도수를 높인다”면서 - 우리 정부와 더 이상 상종 않겠다,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한다, 실제적인 행동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동해 군 통신선 차단 등)
6.1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통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비밀접촉(5.9) 사실을 폭로하면서 - 남측이 천안함·연평도 건에 대한 “사과를 애걸”하고,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평양→핵안보 정상회의)을 “구걸”했다고 주장 * 6.1 조선신보, “대결정권의 말로는 외톨이 신세”로 해설기사
6.3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하순 예비군 사격훈련 중 김일성·정일·정은 초상화를 표적지로 삼은 것을 “특대형 도발행위”라면서, “주모자 즉시 엄벌, 사죄 및 재발방지 담보,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위협
6.5이후 각계 반향, 선전매체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 각계각층 반향, 표적지 관련 “최고준엄 모독 주모자 처벌”요구 ○ 6.6 노동신문 논설, “최고준엄을 지키는 것은 성스러운 임무” 주장
6.9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 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비밀접촉 내용 추가 폭로
6.28 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골부대 등의 ‘처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 등의 훈련구호 관련, “전군, 전민의 보복성전으로 역적패당 쓸어버릴 것” 위협 *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평통 명의 통지문’ 청와대 통보 (6.29) 불발
6.29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선전포고, 해당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 위협
6.30이후 보도매체, 각계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적사건과 대북비난 구호는 우연이 아님,” “북에 대한 선전포고”(6.30, 노동신문), “군대와 인민은 천백배의 보복의지로 들끓음”(6.30, 반향) ○ “사죄할 때까지 군사적 보복조치 단행할 것” 주장(7.10, 노동신문)
7.4-8 시·도별 軍民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 “이○○ 패당 규탄 평양시 군민대회(10여만 참가주장) -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낭독, “특대형 도발, 보복성전” 주장
7.6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명박 역도의 반통일 대결망발 백서” 발표 - 부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만고역적을 단죄한다”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국제관광지구화·재산몰수’로 압박

- 금년 초에 “협력사업 적극 실현”(1.5, 북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2월에도 “금강산·개성관광을 다시 잇고 다방면적인 협력·교류 사업을 다그쳐 나가자”고 주장(2.9, 노동신문)하다가,
- 우리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원칙적 입장(진상조사, 사과, 재발방지)을 고수한데 대해, 현대의 관광 독점권 취소 → 국제관광지구화 → 남측 부동산 몰수·동결 협의위한 방북 요구로 압박

<표 3>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조치

2010.4.23	○ 금강산 지구내 남측 부동산 몰수·동결 조치
2011.4.08	○ 현대아산 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
2011.4.29	○ 최고인민회의 정령,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설정
2011.5.30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2011.6.17	○ 금강산 내 몰수·동결 재산 처리 문제 협의위해 6.30까지 방북요구 * 재산권 협의 결렬과 관련 “통일부의 방해책동 때문” 주장(6.30, 중통)

4. 경제 분야

가. 경제정책의 특징: 인민생활 향상 강조

- 북한의 경제정책은 신년 공동사설과 최고인민위원회 의정보고 그리고 국가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음.
- 201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경공업’,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 등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목표를 제시하면서 특히 경공업 발전을 경제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로 강조함.

- 이와 함께, 경공업 이외 다른 산업에서도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10년 ‘4대 선행부문’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금속부문 대신에 석탄생산 증대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화학공업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대외경제관계에서는 예전처럼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원료문제 해결과 자금 확보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올해 외화획득을 위한 자원개발과 수출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임.
- 내각총리의 의정 보고를 통해서 북한은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며 경제부문전반에서 생산을 힘있게 벌리는 것과 함께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제시하고 부문별 과제들을 강조함.
- 여기에는 “인민소비품생产的 현대화, 과학화”, “알곡생산목표의 달성”, “농산과 축산,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 생산체계 구축”, “4대 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전반에서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적극 추동” 등이 포함됨.
- 국가예산은 “경공업과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경제건설전반을 활성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 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

- 제적 도태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편성되었다고 밝힘(4.7, 중통).
- 이에 따라 예산수입계획은 지난해에 비하여 107.5% 증가시키며, 예산지출계획은 지난해에 비하여 108.9%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표함.
 - 예산지출 항목의 증가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공업부문 12.9%, 농업부문 9%, 4대 선형부문(석탄·전력·금속·철도)과 기초공업부문에 13.5%씩 늘어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북한 당국이 경공업과 농업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정상화에 정책적 비중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함.
 - 특히, ‘기본건설 부문’에 많은 예산(15.1% 증가)을 배분한 사실을 볼 때,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과 희천발전소 건설 등 강성대국 진입의 성과로 내세울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됨.

나. ‘10개년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대규모 외자 유치

- 북한은 올해 초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함(1.15, 조선중앙통신).
 - 여기에서 제시된 사업 분야는 12개인데, 이 가운데에는 최근 북·중협력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라선, 신의주(황금평)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12개 사업 분야는 농업개발, 5대 물류산업단지 조성(라선,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석유에너지 개발, 2천만t 원유가공, 전력 3천만kW 생산, 지하자원 개발, 고속도로 3천km 건설, 철도 현대화 2천600km, 공항·항만 건설, 도시 개발 및 건설, 국가개발은행 설립, 제철 2천만t 생산 등임.

- 북한은 이 계획을 통해서 2020년에는 선진국 경제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는 ‘2020년 선진국 경제수준 도달’이 기존의 강성대국,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를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이처럼 북한이 장기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보다 장기화 시키려는 의도도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국제자본 유치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북한의 10개년 전략계획에는 연도별 계획목표나 추진전략 등 세부이행 전략이 공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지는 않음.
 - 다만 많은 사업들이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통해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다. 상반기 산업부문의 생산 실적: 기대에는 못미쳐

- 북한은 4월 17일 올해 두 번째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올 1/4분기 성과를 공개한 이후 7월 24일 현재 상반기 성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로동신문」(7.1~7.4)을 통해서 주요 기업소와 공장의 상반기 경제계획 수행실적과 전년 동기대비 생산 증대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인 생산실적 보다는 어떤 부분의 작업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식의 추상적인 실적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북한 당국의 정책적 강조와 지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에서 상반기 생산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북한이 발표한 올해 1/4분기 산업생산 실적을 살펴보면,
 - 인민소비품생산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크게 늘어나, 경공업성은 106%, 식료일용공업성은 116% 증가함.
 - 철 영농준비와 관련해, 유기질비료생산계획은 110%, 실어내기 계획은 102%로 초과 수행함.
 -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주철은 112%, 선철은 107%, 발전량은 108%로 늘었으며,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작기계는 140%, 발전기는 6.4배, 탄차는 117%, 베아링은 114%로 장성, 화학공업과 내화물공업부문에서는 질소비료와 소금, 종이, 마그네슘크링카 생산을 각각 121%, 163%, 117%, 130%로 늘였음.
 - 김책제철은 공업총생산액계획을 103% 초과 수행함.
- 이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경공업부문을 강조, 예산편성을 확대하는 등, 농업을 중심으로 석탄·화학 등 관련 산업의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식품가공 부문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제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식량 부족 상황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북한경제실적의 부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으로는, 평양시 10만호 건설사업의 축소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강성대국 건설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평양시 10만호 건설사업을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계획 규모를 1/4 수준으로 축소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통신 서비스부문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전국적인 통신망의 ‘광케이블화’가 완성됨에 따라 ‘정보 고속도로 구축과 전국적인 3세대 이동통신망 형성’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선전(3.2, 중통)
 - 북한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한 이집트 오라스콤사가 발표(4.19)한 2010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301,199명(’10.9월 말)에서 431,919명(’10.12월 말)으로 증가하였으며, 평양과 원산, 함흥, 평성, 안주, 개천, 남포, 사리원, 해주 등 14개 주요도시, 22개 고속도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오라스콤사는 2011년 3월말 현재 북한의 3세대(3G)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3만 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함.

라. 대외경제협력 실적: 중국 편향 심화와 남북경협 위축

- 2011년 상반기 북한의 전반적인 대외경제관계는 주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상반기 중 북한은 대중국 수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북·중무역이 크게 증가
 - 2010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32.1%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출이 46.9%로 큰 증가세를 보임.

- 2011년 1~5월중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7.4%로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짐.

<표 4> 북한의 대중 무역 추이

(백만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5
수출	467(6.4)	582(24.6)	754(29.6)	793(5.2)	1,188(46.9)	814(217.4)
수입	1,231(13.9)	1,392(13.1)	2,033(46.0)	1,888(7.1)	2,278(25.4)	1,148(57.9)
무역수지	-764	-810	-1,279	-1,095	-1,090	-334

주: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출처: 한국무역협회

-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광물성 연료(주로 무연탄), 의류, 수산물 등이며 이들의 수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의 대남한 광산물 수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연탄(HS270111)의 대중국 수출이 매우 빠르게 증가
-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주로 원유), 기계류, 전자기기 등이며 수입규모는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그 외 석유류 수입 증가는 위탁가공에 투입될 원료 수입의 증가를 반영
- 황금평과 라선 특구 개발의 구체적 내용은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5.24조치 이후 남북교역은 축소되기 시작하여 2011년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 규모는 미미한 실정

- 5월까지 남북교역 증가율은 1.9%에 불과한데 반해서, 개성공단 사업은 2011년 1~5월중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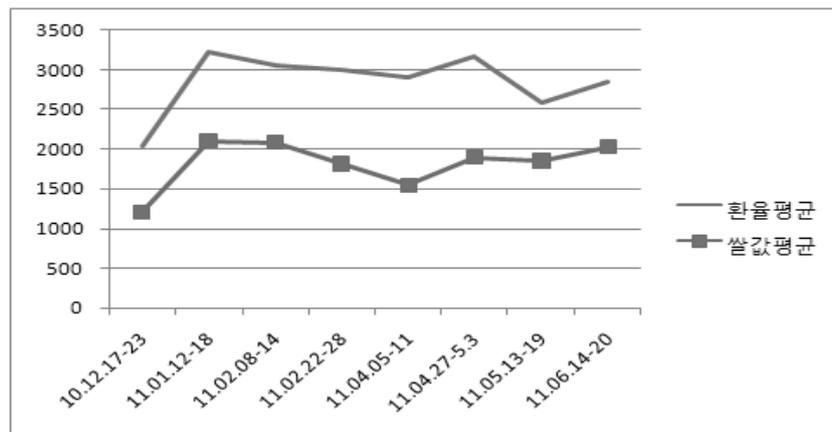
마. 시장 상황 및 주요 특징

□ 시장가격의 변동 추이

- 지난 6월까지 북한 시장에서의 식량가격과 환율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여전히 진폭이 큰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는 북한의 시장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북한경제의 취약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아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식량(쌀) 가격과 환율의 변동 추이는 북한 시장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 시장의 가격을 각각 평균한 것임.

<표 5> 주요 시장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



출처: 데일리 NK

- 2011년 초 북한시장에서는 환율과 물가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북한 당국의 전국가적인 군량미 징수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면서 기관이나 단체마다 할당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외환 확보에 나서면서 외환수요가 급증한 것이 환율의 폭등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북·중 국경지역 군 보위사령부에 대한 검열이 진행되고 식량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공식·비공식 식량 유입이 감소한 점이 시장에서 식량가격의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여기에 더하여 연초 공동시설학습기간(1.1~20)과 새해 첫 생산전투기간(1.3~2.15)으로 주민들을 동원함에 따른 시장활동 제한이 시장 가격의 폭등한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함.
 - 환율의 증가 폭이 예측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양강도 혜산시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바, 작년 말(12월 31일) 환율이 인민폐 1원이 북한 돈 330원에서 올해 초(1월 3일)에는 100원이 오른 430원으로 증가함.
- 그러나 시장의 가격은 1월 하순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4월 초순까지 계속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1월 하순부터 시장에서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이유에는 1월 말, 공동시설학습기간이 끝나고 장마당에 대한 통제가 완화된 것에 더하여, 중국에서 대규모 식량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해외대표부나 무역일군들에게 할당된 식량 수입과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라고 함.
 - 또한 2월 16일(김정일 생일)을 기해 한 달분 배급을 제공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부추겼다고 함.

- 이와 함께 군량미 수거를 목적으로 통제되었던 식량 이동이 일부 자유로워지면서 공급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이 식량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동안 하락세를 보여준 식량가격이 4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반등하는 현상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한때 중국을 통한 식량 수입이 중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하여 봄철 보릿고개에 접어들면서 춘궁기 식량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감자의 수확량이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북한시장의 주요 특징

- 첫째, 시장의 외견상 활기는 회복, 거래는 감소
 - 화폐개혁 이후 정부당국은 한 때 시장을 폐쇄하고자 했지만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장마당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 이후 장마당 운영은 정상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국가의 배급체계가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은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으로 다시 몰려나오고 있지만 장사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수요마저 크게 감소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루 장사로 하루를 연명하는 주민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가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봐줄 가족도 없는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둘째, 빈곤계층 증가

- 화폐개혁 이후 국가가 이전의 개인적인 부채관계를 무효화한다고 선전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부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부채관계를 형성하여 장사를 하다가 실패하여 재산과 집을 날린 가족들이 줄지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셋째, 위안화 선호도 및 사용 증가

- 화폐개혁 이후 가지고 있던 북한 화폐가 휴지조각으로 변한 것을 경험한 북한주민들은 이제 가능하면 외환으로 여유자금을 보유하려고 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거래도 대부분 외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는 달러에 비해 중국 위안화에 대한 사용과 선호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평양 등 내륙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함.
- 이러한 현상은 위안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관가치가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중국과의 거래에 편리한 위안화가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대규모 무역거래에는 여전히 달러가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위안화가 고액권이 없어 불편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5. 사회·문화 분야

가. 주민 생활고 지속

- 2011년 상반기에도 북한주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만성적 식량부족과 함께 화폐개혁(2009.11) 이후 계속되는 물가 폭등은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보다 심화시킨 주요인으로 작용함.
 - 군량미 징수, 구제역 확산, ‘민족최대의 명절’ 행사 준비 등으로 생활고 가중
-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쌀 지원이 지연되고 지원량도 감소함으로써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짐.
 - 3대 권력 세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지원 감소
- 상반기에 북한의 식량문제가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심각한 기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북한주재 영국대사(피터 휴스)는 영국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대로 매년 이어져 온 식량 문제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기아 문제는 없다”고 밝힘(5.24, 연합뉴스).

나. ‘민족최대의 명절’ 행사 진행

- 김일성 주석(4.15)과 김정일 위원장(2.16)의 생일 행사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됨.

- 기념보고대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태양절' 기념 예술소품공연, 근로단체별 충성맹세모임, 체육경기, '김일성·김정일화' 전시회, 체육대회, 시·군별 경축행사, 일부 지역에 한해 쌀·과자 특별 배급 등
- 그동안 김정일 위원장 생일 축하 행사의 하나로 진행되어 온 '정일 봉 답사행군'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참가자 규모가 예년의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으며, 지원자도 부족하여 평양시 돌격대와 강원도 군인들을 강제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짐(2.17, 자유아시아방송).
-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생일 경축연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확인, 과시함.
 - 경축연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북한의 대표적인 세 권력기구가 처음으로 공동주최
- 김정일 위원장 생일 경축행사를 통해 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권위 및 위상 강화를 도모함.
 - 김정은 위대성 강연,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노래와 시 공연에서 김정은 위대성 부각 등

다. 언론 매체와 사상교양을 통한 김정은 후계구도 공고화

- 노동신문은 '온 세계에 앞서나가리'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김정은의 능력 및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홍보, 과시함(1.7, 노동신문).
 - 정론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과 함께 시찰한 자강도 희천연합기계종합공장을 'CNC'(컴퓨터수치제어) 실현의 세계적

본보기로 소개하였는바, 북한에서 'CNC'는 김정은을 상징

- 북한 당국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부터 전 산업시설의 'CNC'화를 선전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CNC' 관련 구호인 '온 세계를 향하여!'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김정은이 위대한 포부와 야망을 지닌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 형성을 꾀하려는 의도성 시사

○ 조선중앙텔레비전은 김정은 생일(1.8)에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를 방영하였으며, 방송에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 편지 등을 소개함으로써 후계세습의 정당화 및 공고화를 꾀함(1.8, 조선중앙TV).

-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에 이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선전

○ 김정은 생일(1.8)은 휴식일로 선포되지 않았고 특별공급 및 기념행사도 없었으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고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고려한 김정은의 뜻에 따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바, 이를 통해 세습 후계자로서의 '인민'에 대한 배려와 영도력을 과시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임.

- 북한 당국은 당원 대상의 강연회를 통해 김정은의 뜻을 김정일 위원장이 수용하여 방침을 하달했다고 선전(1.9, 열린북한방송)
- 김정은의 지난 2010년 생일은 특별 휴식일로 지정

○ 사상교양을 통해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의 능력 및 위대성을 선전함.

- 평양 10만호 주택건설 사업, 김일성 생일 '태양절' 행사 등을 주도
- 김정일 위원장과의 현지지도 등

라. 체제 및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저항 행태 확산

- 화폐개혁(2009.11) 이후 식량난이 보다 악화됨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불신 및 저항 행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김일성·김정일 생일에 받는 선물이 장마당에서 거래,
 - ‘3대 위인상’ 초상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배지 등도 매매,
 - 체제 비판과 ‘3대 권력세습’을 비난하는 내용의 인쇄물과 DVD 살포,
 - 평양철도대학 담장에 김정일 위원장을 실명으로 비난한 낙서 등장,
 - 장마당 등지에서 주민들의 돌발적인 저항·소요 사태 빈발, 확산 등
- 또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독자마당’ 게시판에 김정일·김정은을 비방하는 내용의 시가 올려져 수 백 명이 읽은 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짐(1.6, 자유북한방송).

마. 북한주민들 사이에 마약 복용 및 거래 증가

- 북한주민들 사이에 마약 복용 및 거래가 보다 더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성들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마약 복용 청소년의 상당수가 간부나 부유층 자녀이며, 일부 여학생들은 마약을 사기 위해 매춘 행위를 하는 사례도 발생(1.4, 데일리NK)
- 주민들 사이에 마약 복용 및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당·정·군 간부를 비롯해 단속을 해야 할 법기관 사람들까지 마약을 하는 상황이므로 단속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바. 폐쇄체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

- 대내외적 종교 관련 사업·행사를 통해 북한이 종교 탄압이 극심한 체제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함.
 - 1930년대 타계한 기독교인 사회사업가(백선행)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하여 영화관과 텔레비전에서 방영할 예정(1.17, 데일리NK)
 -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3·1절을 맞아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가정예배처소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남북공동선언문을 발표(3.1, 중통)
 - 석가탄신일에 북한 각지 사찰에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개최(5.10, 중통)
 - 미국의 목사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10일 방북해 박의춘 외무상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5.10, 중통)

- 북한의 대표적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홈페이지를 홍보하였는바, 이는 체제 및 언론의 폐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조처라 하겠음.
 - 홈페이지 홍보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외국의 벗들을 위해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며 주소를 소개(2.25, 중통)

- 북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참가하는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개최(4.29)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내년에도 이 대회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짐.
 - 대회는 영국의 루핀 여행사가 여행 패키지(4.26~30)의 일환으로 개최한 것이며 영국, 독일 등 8개국 17명의 선수가 참가(5.6, 데일리NK)

사. '아리랑' 공연 준비에 착수

- 2011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공연 (8.1~9.9)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짐(6.27, 중통).
 - 일주일에 6차례 열렸던 공연이 4차례로 줄고 기간도 9월 30일에서 9월 9일까지로 축소
- 북한은 올해로 7회를 맞는 '아리랑' 공연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 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폐쇄체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함께 체제결속을 과시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것임.
 - 북한은 '아리랑' 공연과 관련해 "올해 조선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대(3.16, 중통)

아. 북·중 문화·관광교류

- 북한 평양예술단이 대형 가무극 '활짝 핀 진달래'의 중국 순회공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이번 공연은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7.1)을 기념하고 북·중 우의를 다지기 위해 중국 문화부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3개월에 걸쳐 중국 전역 순회 예정
 - 지난해 5월에는 피바다가극단이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에 맞춰 2개월 동안 베이징 등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30여 차례에 걸쳐 중국 원작을 가극으로 만든 북한판 '홍루몽'을 공연
-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룡징(龍井)에서 북한 칠보산을 다녀오는 관광코스가 신설됨(5.6, 연변일보).

- 룡징에서 싰허(三陟)통상구를 거쳐 북한의 칠보산을 둘러보는 이 관광코스는 ‘변경(邊境)관광’으로 분류돼 비자 없이 통행증 발급만으로 여행 가능
- 훈춘(琿春)에서 북한 라선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순회하는 3국 무비자 관광이 지난 4월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룡징-칠보산 관광이 개통됨에 따라 북·중 관광 교류가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

자. 미·북 언론·체육 교류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단장: 김병호사장)이 미국 AP통신 본사가 있는 뉴욕 방문을 위해 6월 23일 평양을 떠난 것으로 알려짐(6.24, 중통).
 - 지난 3월 AP통신의 토머스 켈리 사장 등 AP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 바 있으며 당시 켈리 사장은 AP통신 평양지국 개설을 북측에 요청(6.24, 미국의소리)
-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6.9~16)이 미국 보스턴과 뉴욕 등지에서 이루어짐.
 - 2007년 이후 두 번째 방미 공연이며 17명으로 구성
 - 조선신보는 ‘태권도 시범단 미국방문, 조·미(朝·美) 친선, 화해, 평화의 기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특히 CNN 방송이 1970년대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핑퐁외교’를 거론하며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해설한 것에 대해 “조미관계 정상화가 멀지 않아 이뤄지리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6.27, 조선신보)

- 내년 10월 경 여자 선수로 구성된 북한 태권도 선수단의 미국 공연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6.17, 자유아시아방송; 조선일보).

차.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통제 강화

- 지난 상반기에 걸쳐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비사회주의 감시 및 통제가 보다 강화되었으며, 이는 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짐(2.7, 데일리NK).
 - ‘비사회주의그루빠’ 활동은 국경지역에서 일어나는 마약 및 위조지폐 밀매, 탈북도강 및 불법전화 소탕, 외국인과의 접촉을 통한 비밀교류 적발에 목적
 - 김정은이 직접 중앙당 행정부 책임자를 앞세워 비사회주의 단속을 강화
- 북한 당국은 인민반 회의 등을 통해 남한과 중국 등,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교화소로 보내고 가족들은 추방 시킨다는 내용의 포치(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4.12, 데일리NK).
-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까지 비사회주의 현상을 근절시키기 위한 검열조직인 ‘100돌 그루빠’를 신설한 것으로도 알려짐(6.23, 북한개혁방송; 6.27, 데일리NK).
 -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이후 조직된 것으로 정식 명칭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 당 지도소조 검열대’이며 검열대상을 세가지로 분류하는바,
 - 마약, 탈북, 인신매매 등 엄중범죄는 보위부에서,

- 강도, 폭력, 도적질 등 치안폭력문제는 보안서에서,
- 뇌물, 밀수, 불법 장사 등 생활범죄는 당에서 교양 처리 취급

카.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재스민 혁명' 여파 차단에 주력

- 지난 상반기를 통해 심화, 확산된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에서의 반정부 시위 관련 소식이 주민들에게 유입, 침투되는 것을 우려하여 북한 당국의 주민 단속 및 감시가 보다 강화됨.
 - 지난 1월부터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휴대전화 대여 중단(2.21, 교도통신),
 - 북한에서 활동하는 외국 비정부기구(NGOs)에 대해서도 일을 돕는 북한 주민이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단속할 것을 경고(4.5, 아사히신문) 등
 -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IT기기에 대한 규제 조치 강화
- 또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 단속, 봉쇄를 강화하고 있으며 탈북자의 북한 내 가족을 산골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의 민주화 사태 등 외부 소식을 전하기 때문
- 북한 당국은 리비아 등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지역 주재원들의 귀국 불가 조치를 내렸으며 북한주민들의 중국 사사(私事)여행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리비아 등 외국에로의 인력 파견도 보류 내지 금지

- 북한 당국은 폭동 및 시위 진압 관련 기구를 창설하고 진압용 장비를 대량 구입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음.
 - 2월 초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 인민보안국마다 100여 명 규모의 ‘폭동진압용 특수기동대’(경찰조직)를 조직하여 폭동 요소 색출 작업 진행(2.24, 데일리NK)
 - 최근 중국에서 최루탄, 헬멧, 방패 등 시위 진압용 장비를 대량 구입(6.21, 연합뉴스)

6. 군사 분야

가. 군사위협 확대

- 북한군대의 군사위협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속
 - 일반적으로 북한군의 군사위협은 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전후 강화되어 왔으나,
 - 올해 상반기(1~6월)의 경우, 한·미 연합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남한의 대북심리전 전개를 겨냥한 북한의 군사위협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 왔음.
 -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전면전으로 대응 하겠다”라든가, “임진각 등 심리전 발원지를 조준 격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대표적(2.27, 중통·중방)

나. 군사력 강화 활동 지속

- 북한은 핵 및 미사일 개발, 특수전력, 서해해안의 군사기지 중심으로 군사력 강화 활동 지속

<핵 및 미사일 개발>

- 3차 핵실험 준비(2.10, 연합뉴스)
 -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여러 개의 지하갱도를 추가로 굴착
 - 한미 정보당국은 이를 “3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명백한 증거”로 확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

- 미사일 개발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2.17, 워싱턴 포스트)
 - “위성사진상 30m 높이 현대식 발사 타워 포착”
 -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건설한 제 2 미사일 발사기지에서도 장거리 미사일(ICBM 급)을 쏠 수 있는 발사타워 공사를 끝낸 것으로 판단

<서해해상 및 서해해안 군사력 강화>

- 상어급 잠수함(300t) 보다 선체길이가 늘어나고 수중속력 등 성능이 향상된 신형 상어급 잠수함 ‘K-300’을 건조 배치하는 등 잠수함 전력 증강(2.16, 데일리NK)
- 북한은 서해안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군사시설을 신축(4.6, 연합뉴스)
 -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북한의 고암포 해군기지 완공단계
 - 고암포 기지의 육상계류장은 전투기 격납고와 유사한 형태로 건설되었으며, 여기에 공기 부양정 및 공기부양전투함 배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다. 남북군사회담을 통한 남북대화 시도

- 북한은 ‘전쟁손실’ 운운하며 대화 필요성 강조
 - “파괴와 살육을 동반하는 전쟁은 가슴 저린 손실을 주고 해당 나라와 지역의 경제·안정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행위”(1.19, 노동신문)라고 대화협박

- 이어 1.20 북한 당국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남북군사고위급 회담개최를 제의(1.21, 중방)
 - 이에 따라 2011. 02. 8~9 이틀 동안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린 대령급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고위급 회담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렬

Ⅲ. 분야별 정세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야별 정세 전망

가. 정치 분야

- 체제결속 강화를 목표로 주민 및 간부를 대상으로 통제에 주력하는 현재의 정책기조는 위기 상황이 가속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당군간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김정일 권력의 누수 현상은 물론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군간 및 세력간 알력 양상은 힘의 집중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김정일의 적극적 개입은 한계를 지닐 것임.
- 후계과정 진척 역시 뚜렷한 업적이 없는 이상 파격적 행보를 보이며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며 대중적 이미지 구축 및 엘리트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임.
- 그러나 이면에서 점진적으로 숙청을 진행하여, 후계안정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구세력을 제거하고, 이를 김정은 친위세력으로 메우는 정지작업이 비공식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음.
- 미·북 접촉 재개 등 6자회담 개최 분위가 마련되는 현 정세를 감안

할 때 미국이나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 극단적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대화 진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신군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로 급격히 선회할 수 있음.

나. 외교 분야

- 북한의 대중국 관계 강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 2007년 19억불이던 북·중교역은 2010년 34억불로 불과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
 - 2011년 상반기 북·중교역은 25억 8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의 12억 8천 8백만 달러의 두 배에 이르며, 이 같은 추세라면 금년도 북·중교역은 5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신압록강대교 건설 본격화
- 북한은 천안함 폭침 이후 미국과 한국의 압박으로 고립무원 상태에 놓였으며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함.
- 중국의 입장에서는 2010년 천안함 폭침이후 고조된 미국과의 긴장 상태를 금년 1월 미·중을 통해 일단 봉합하였으나, 북한을 완충지대(buffer zone)에서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으로 인식함.
 - 북핵문제 등과 관련 2008년까지 대체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였으나, 2008년 여름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현실적인 우려사항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안정을 최우선시 함.

- 실제로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전략적 의사소통의 심화’와 ‘국가건설 경험교류의 강화’ 등 2010년 북·중 정상회담시 드러낸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함.
- 그러나 대중국 의존 일변도는 북한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이 아니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부작용이 따름.
 - 광물자원 중심의 북·중교역은 남북교역의 주품목인 모래, 송이버섯, 꽃게 등에 대해 대체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 북·중교역의 확대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의 상승과 광물자원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한 결과로, 무연탄, 철광석, 비합금 선철로 북한의 귀중한 자원이 유출되는 것
- 따라서 북한은 북·중관계를 활용하여 미국에 접근하려고 할 것임.
 - 북한이 북·중관계의 진전을 선전하는 것도 내부용 이라기보다는 한국이나 미국에 대하여 자신들의 레버리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라선 경제무역지대나 황금평 지대는 북·중간 참여한 이해관계의 조정 결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음.
 - 미국은 북한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킴.
- 미국의 대북 대화와 식량지원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무라눔 농축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없다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추진

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포용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등 위협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문제를 중국에 맡기는 “전략적 인내” 보다는 미국이 직접 북한을 다루어야 한다는 포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음.

다. 대남 분야

- 북한이 “최고존엄 모독”과 연계하여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5.30,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한 만큼 상당기간대화·경협 요구 등 대남 유연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판단
- 반면에 우리에게 대해 “계단식 군사적 보복대응”을 위협(6.3, 군총참모부)하였고, 북한 내부의 강경 입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남 도발 재개 가능성은 증대될 전망
 - 특히 수해 등으로 가을 작황이 나빠져 내부 민심이 악화될 경우,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 4월 우리 총선 이전에 다목적 카드로 정세조작을 위한 도발 유혹에 빠질 수 있음
 - 추가 핵실험, 개성공단사업 문제 야기, 서해 혹은 DMZ에서의 총격, 사이버 테러 등 우리의 ‘대북 대결정책의 문제점’과 ‘안보상 취약성의 증대’를 부각하기 위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
- 도발 여부와는 별도로, 우리 내부 국론분열을 위해 ‘고발장,’ ‘백서’ 등 공개적인 방법은 물론, 지하조직·사이버망을 통한 반정부 투쟁 선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

라. 경제 분야

□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 노출 노력 지속

- 북한 당국은 하반기에도 ‘2012년 경제대국’ 원년을 열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경공업부문의 생산 증대에 정책적인 비중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를 통해서 경제난에 따른 민심이반 현상을 완화하고 김정은으로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식량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앞으로도 농업생산 증산에 주력하며 이를 지속 강조할 것으로 보임.
 - 자체적으로 농업생산 증대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협력 강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의 이행 등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외자유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하반기에도 중국과의 경협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나선, 황금평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북·중경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부문의 생산실적은 정체

- 2012년으로 설정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생산활동의 정상화 작업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선행부문의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등 소위 주체공업의 생산 기반 확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공업부문에서의 ‘강성대국 진입’을 표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산업부문에서의 CNC화를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선전할 것으로 판단됨.

- 상반기 경공업 부문에서의 성과가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비료 부족 상황의 지속, 봄철 가뭄과 저온 및 홍수 등의 영향으로 경작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식량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 심화 지속

- 하반기에도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의 확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특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의 중국경

제에 대한 의존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 확대와 함께 중국자본의 대북투자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차적으로 나선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활동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따라 북한의 대서방권과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상존함.

-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미국을 선두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이 가시화될 경우 남북관계의 개선 압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활동의 안정화

○ 하반기에도 시장활동의 안정성이 계속될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하반기 시장 경기는 전반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이는 후계체제 구축차원에서 비사회주의현상에 대한 통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다만,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자제하는 대신에 국영상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함께, 북한 내에서 중국 위안화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마. 사회·문화 분야

- 북한주민의 생활고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며, 김정은 후계구도 강화 및 이상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언론 및 문화·예술 부문에서 김정은 후계구도 공고화 작업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언론매체 외에도 시·소설작품 창작 및 배포, 공연예술 등을 통해 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이미지 형성 작업이 보다 적극화
 - 당 및 근로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 단위의 사상교양을 통해 김정은의 통치 능력 및 업적 과시
- 하반기 들어서 체제 및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저항이 보다 더 확산, 심화될 것이며, 장마당 단속 및 외부정보 유입과 관련한 당국의 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체제 및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저항은 생활고의 지속과 주민통제에 근원이 있으며 외부정보의 침투·유입으로 인해 보다 가속화
- 특히 ‘재스민 혁명’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해 주력할 것인바, 이를 위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각종 IT기기에 대한 규제 조치 및 사상교양을 확대,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각급 당조직 및 근로단체들에 대해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 강화를 통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 진지’의 공고화를 촉구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3월 말 현재 53만5천133명이며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는 필수용품으로 인식(6.17, 연합뉴스)

- 하반기에도 국제사회의 지원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부정적인 체제 이미지 개선에 주력할 것이며 일환책으로 사회·문화 부문에서의 체제 개방을 확대하고 특히 미국과의 사회·문화 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북·중 유대 관계 강화에도 주력

바. 군사 분야

- 북한은 선군정치를 견지하면서 군사력 증강 중심의 군사정책을 고수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북한은 핵과 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자체 군사적 억제력 확보와 함께 대 미국 협상력을 높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이며,
 - 특히,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미 접촉을 확대해 나가면서 6자회담 재개로 핵협상에 임하게 될 것임
- 남북한 차원에서는 군사위협을 강화하여 남한 내에 ‘전쟁과 평화’라는 이분법적 선택에서 여론분열을 조성하여 현 정부 또는 여당을 궁지로 몰아가고자 할 것임
 - 군사위협은 서해해상 도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시험 등으로 표출
- 북한은 군사회담 제의 → 인위적 결렬을 되풀이함으로써 이를 ‘남한 당국의 무능’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 상존

2. 정책적 시사점

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 대비

-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철저히 경계하고 분단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던 때의 기존 관점에서 탈피, 군부 강경파들의 돌출행동도 고려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안보부처를 중심으로 북한변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대남 돌출행태에 대한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 대비
-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은 내부용과 대남용으로 적극 활용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
 - NLL을 부정하는 유형의 군사도발 또는 단순 침범을 되풀이 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임.
 - 현 상태로서는 북한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군사적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대비태세를 부각시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행위 감행을 약화시켜 나가도록 함.
- 내년 북한의 ‘강성대국 진입’ 및 각종 정치행사 추진,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 교체 등으로 대북정책 환경이 더욱 불투명해 질수 있는 점을 감안, 북한과 주변정세에 대한 정밀한 점검 작업도 병행

나. 대내외 홍보

- 남북관계 경색 배경과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노력을 강화, 북한의 국론분열 시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대비함이 중요
-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시 야기될 수 있는 남한 내의 불안정한 여론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전 노력 강화
 -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여야, 진보·보수 구별 없이 공동대처해야 된다는 당위성 강조
-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주지시킴.
 -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 참여 등 대화의지는 있으나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
 - 북한의 사과 없이는 우리의 원칙있는 대북정책 지속

다. 대북 원칙 속에서 긴장완화 노력

-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한 대처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북한의 위협에 맞대응하기 보다는 불필요한 충돌 소지를 점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견지
 - 북한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원칙 있는 대화재개 노력을 지속하면서, 영유아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적극 검토

- 북한의 군사대화 요구 시 당당히 응하되 원칙성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을 북한 당국에 심어주도록 함.
- 김정일 위원장이야말로 ‘대화냐 대결이냐’ 결정하고, 대화를 원한다면 이에 맞는 내부정비를 선행해야 할 것을 요구함.
 - 우리가 북한의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도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대남 도발을 계속하고 남북대화마저 좌지우지하는 북한 내부의 복잡한 구도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 북한 내 군부 강경파와 당내 후견세력간의 암투가 진행 중이라는 전제 하에 선별적 접촉과 선택적 지원의 묘미를 활용하여 도발세력을 간접적으로 억제할 필요성

부록. 북한방송 주요 논조(분야별 구분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1월 1일 토요일	北, 黨軍青年報 신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발표	중통(1/1)	경제	
	김영남, 1.1 총련 중앙상임위 의장 ‘서만술’에게 새해 축전	중방(1/1)	외교	
2011년 1월 3일 월요일	평양시, 1.3 김일성광장에서 신년 공동사설 관철 결의 군중대회(10만명) 진행	중통(1/3)	정치	
	김영남과 최영림 내각총리, 1.3 미얀마 독립 63돌 즈음 同國 국가평화발전이사회 위원장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 발송	평방(1/3)	외교	
	“南 당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은 북남관계 파괴, 평화위협 의 근본요인”이라며 “평화보장을 위한 대결전쟁 책동 종식” 주장	중통(1/3)	대남	
2011년 1월 4일 화요일	平南 문덕군 위생방역소, 겨울철 위생방역사업(신형독감 예방, 유해곤충 박멸사업)에서 성과 보도	노동신문 (1/4)	사회 문화	
	김영남, 1.4 이집트 폭탄테러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전문	중통(1/4)	외교	
	국방부 ‘2010 국방백서’(‘北의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적’表記) 발간 관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선언, 북침야망의 발로”라고 비난하며 “대결과 전쟁은 파멸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위협	중통(1/4)	대남	
	평양시, 1.4 순안구역 등 주변 농촌들에 거름 1만 9천t 지원	중방(1/5)	경제	
2011년 1월 5일 수요일	새해 공동사설 관철 및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平南平北黃南慈江道咸南道군중대회’, 1.5 각지에서 진행	중통(1/5)	정치	
	박의춘 외무상, 1.5 駐北 체코대사의 離任 방문담화	중통(1/5)	외교	
	[北정부정당·단체연합성명], 1.5 “△南北 당국간 회담 무조건 개최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사업을 포함한 모든 문제 협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방 중상 중지” 등 제의	중통(1/5)	대남	
	김정일의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현지지도 기념보고회, 1.5 박태덕(黃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현지진행	중방(1/6)	정치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1월 6일 목요일	김정일, 조선중앙사진사 일꾼들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연구사 등에게 감사 전달	중방(1/6)	정치	
	김정일은 최근 바다(조개잡이)에 표류 中 구조된 주민들(平北 靑山군 주민 10명 등)의 신속 歸家를 위해 1.6 軍用機 동원, 배려조치 소개 및 칭송	중통(1/6)	정치	
	黃北·咸北·강원도·양강도·남포시·라선시, 1.6 新年 공동 시설 관철 및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 편지 호응 군중대회 진행	중통(1/6)	경제	
	김영남, 1.6 離任 방문 駐北 체코대사와 담화	중통(1/6)	외교	
	「반제민전」평양지부대표(조일민), 1.6 ‘北정부정당·단체연합성명’(1.5)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공명정대한 문건”이라며 ‘지지·호응투쟁’ 선동 중통 기자회견	중통(1/7)	대남	
2011년 1월 7일 금요일	김정일의 희천연하기계종합공장(자강도 희천시) CNC 화 실현은 “최첨단 돌파전에서 이룩된 위대한 승리의 표본”이라며 “경제기술적 우위를 앞세우는 침략자들 앞에 최첨단 돌파로 대답하는 공민이 되자”고 경제강국 건설 투쟁 독려	노동신문 (1/7)	경제	
	공동시설 과업 관철을 위한 ‘선전화전람회’, 1.7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	중통(1/7)	경제	
	駐北 中대사 ‘류홍재’, 1.7 北 인민보안부 일꾼들과의 친선모임 개최	중통(1/7)	외교	
2011년 1월 8일 토요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 北, 1.8 ‘정부정당·단체들 연합 성명 전폭지지’하며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남북당국間 회담’ 등 공식 제의	중통(1/8)	대남	
2011년 1월 10일 월요일	黃北·남포시, 박태덕(黃北道黨 책임비서)·강양무(남포시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공동시설 과업 관철 군중 대회 개최	중방(1/10)	정치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원료와 자재의 원만한 보장’을 강조하며 “원료의 국산화, 지방의 원료원천 최대 탐구 동원, 최첨단 연구사업 강화 투쟁” 호소	노동신문 (1/10)	경제	
	평양시 봉화거리 등 전국의 원림 녹화를 최단기간 내에 갱신하기 위한 계획실행 등 전국의 원림녹화형성을 위한 사업 활발히 전개	중통(1/10)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北 「亞-태평화위」·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경협사무소 북측소장, 1.10 南 통일부·대한적십자사 총재·경협사무소 남측소장에게 전통문 발송	중통(1/10)	대남	
2011년 1월 11일 화요일	김정일,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12.31)에 대한 ‘친필書翰’ 전달	중통(1/11)	경제	
	北 각지 사찰들에서 1.11 ‘성도절(成道節) 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 진행	중통(1/11)	사회 문화	
	안정수(경공업상)-리만성(농업성 부상)-리용철(청년동맹 1비서)-장철(국가과학원 원장) 등 “경공업의 현대화 실현, 선진영농방법 도입 등” 새해 공동사설 과업 관철 결의 피력	중통(1/11)	경제	
	김영남, 1.11 이란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로전문 발송	중통(1/11)	외교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와 ‘연합성명’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협상의 진정성”을 再강조하며 南 일부의 ‘北 진정성 의문’ 거론에 대해 “마주 않으면 확인될 것” 이라고 공세	중통(1/11)	외교	
	駐中 北 대사 ‘지재룡’, 1.11 새해 즈음 ‘이조성’(中 전 국민민대표대회 외사위 주임위원)등 초대下 연회 마련	중통(1/13)	외교	
2011년 1월 12일 수요일	평양밀가루공장 등, 새해 공동사설 관철 궐기모임 진행	중방(1/12)	경제	
	김정일,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병공장 현지지도	중통(1/12)	경제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 공동사설 과업 관철 위한 궐기모임 각각 현지에서 진행	중방(1/12)	경제	
	北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소장, 1.12 남측 소장에 통지문을 보내어 “경협사업을 일방적으로 차단시켜 놓고 사무소까지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남측이 사무소의 정상운영과 관련한 실천적 조치들을 속히 취할 것”을 요구	중통(1/12)	대남	
2011년 1월 13일 목요일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1.13 ‘국가가격제정국’을 ‘국가가격제정위원회’로 개정	중통(1/13)	정치	
	2.8직동청년탄광 등 새해 공동사설 관철 궐기모임 진행	중방(1/13)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1월 14일 금요일	김정일, '平北道內 공장들'(압록강기계종합공장, 수봉 베어링공장, 압록강일용품공장)과 '대관유리공장' 현지 지도	중통(1/14)	경제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과학자들이 연구한 '미생 물비료'의 농업생산 성과 好評 및 平北道 협동농장들 적극 도입 보도	중통(1/14)	경제	
	北 「조평통」대변인, 1.14 “우리(北)는 남측 당국으로부터 아직 어떠한 정식제안을 받은 것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대화제의 호응 再次 촉구 중통기자 회견	중통(1/15)	대남	
2011년 1월 15일 토요일	北, '국가경제개발 10개년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 채택 및 '국가경제개발총국' 설립 결정	중통(1/15)	경제	
	美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조선반도 배치 및 韓美日 합동군사연습은 “東北亞 평화를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로 “각국은 대화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	중통(1/15)	대남	
	김영남, 브라질의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피해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1.15 위문전문	중통(1/16)	외교	
2011년 1월 16일 일요일	'韓-日 국방장관회담' 진행(1.10)은 “兩國의 군사적 결탁개시의미와 일본의 재침을 열어주는 반민족적 범죄 행위”이며 “남북 대화와 관계개선에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라고 持續 비난	중통(1/16)	대남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것은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관건적 고리”라며 “주민이 올해 알곡증산투쟁에 떨쳐나 식량문제를 해결하자”고 총력투쟁 독려	중통(1/17)	경제	
	北, 토지정리사업 전개로 인해 '平北 5만3,000여 정보', '黃南 10여만 정보', '平南과 평양시 9만4,400여 정보의 토지' 정리	중통(1/17)	경제	
	北,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은 “조선반도 긴장격화와 對北압살을 노린 미제의 음흉한 각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西海북방한계선(NLL)의 주인정 및 철회' 주장	평방(1/17)	대남	
	나카노 간세이(일본납치문제 담당상,1.14)의 對北발언(부조리의 집단, 독재국가) 관련 “새 내각이 北-日 대화 재개에 나서는 것에 불안을 느끼며 각방으로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중통(1/17)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1월 18일 화요일	김정일, 기술개건 된 1월18일 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	중방(1/18)	경제	
	평양돼지공장 30여개 보조 생산건물 건설개건 등 현대적 생산기지 일신, 개성시 일꾼 등의 유기질 비료 3,500여톤 농장지원	중방(1/18)	경제	
	「판문점」 적십자채널 재개통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동결해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려는 우리(北) 입장의 確固不動한 실천"이라고 호응 壓迫	평방(1/18)	대남	
2011년 1월 19일 수요일	김정일,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과 중앙동물원 현지지도	중통(1/19)	사회 문화	
	박의춘 외무상, 1.19 駐北 세계보건기구(WHO)대표 ('요나스 테겐 월드마리암) 신임장 접수 및 담화	중통(1/19)	외교	
	남포유리공장 종업원-건설자들, 1.19 강양모(남포시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꺾기 모임 진행	중방(1/20)	경제	
2011년 1월 20일 목요일	김정일, 11월20일 공장과 용악산 샘물공장 현지지도	중방(1/20)	경제	
	北-루마니아, 1.20 평양에서 김성기(외무성 부상) 참가下 1956-1989년 체결된 '상호협정의정서' 조인식 진행	중방(1/20)	외교	
	北 국방위 인민무력부장(김영춘), 1.20 南 국방부장관에게 '조선반도 긴장상태 해소 위한 南北 고위급군사회담개최 제의' 공개서한 발송	중방(1/21)	대남	
2011년 1월 21일 금요일	김정일, 황해북도 인민학습당사리원시 식료공장(정방산종합식료공장, 사리원기초식품공장,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 현지지도	중통(1/21)	경제	
	北, 올해 경공업부문 총력집중 持續 강조와 단천마그네사공장 등 마그네사크링카 생산기지로 면모개선 및 원료매장량 등 '유리한 제반여건을 토대로' 마그네사크링카 생산과 수출 전망 好評	중통(1/21)	경제	
	양강도 대흥단군, '고리형순환생산체계'(축산↔감자농사 연결) 확립	중방(1/21)	경제	
	세계적인 식량가격 폭등과 식량위기 전망 등 '유엔식량농업기구' 자료 轉言 및 "식량의 자급자족만이 現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 주장	평방(1/21)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1월 22일 토요일	김정일, 만수대창작사(평양시 평천구역 소재) 현지지도	중통(1/22)	사회 문화	
	北, 1.22 黨 중앙위 제1부부장 '박정순'(82세, 폐암) 사망 訃告 발표	중통(1/22)	정치	
	北, 美-中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1.19) 소식 및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필요성,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 언급	중통(1/22)	외교	
2011년 1월 23일 일요일	김정일, 1.23 이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회사 이사장 ('나기브 싸위리쓰') 접견(장성택 국방총부 위원장 배석) 및 담화와 만찬	중방(1/24)	경제	
2011년 1월 24일 월요일	故 박정순(黨 중앙위 제1부부장) 장례식, 1.24 김기남(黨 비서, 哀悼辭) 등 참가下 國葬으로 진행 및 애국열사릉에 안장	중통(1/24)	정치	
	김정일 생일(2.16) 관련 '제16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꾼 체육경기대회'(농구·태권도·널뛰기 등 11개 종목) 개막식, 1.24 강능수(내각 부총리)·리영수(黨 부장) 등 참가下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중통(1/24)	사회 문화	
	'北 연합성명'에 대한 南당국의 공식반응은 "한마디로 '진정성'이라는 말로 정리된다"며 "진정 앞에 조건을 달고 나서는 것은 진정에 대한 모독이며 배신"이라고 주장 및 호응 촉구	평방(1/24)	대남	
2011년 1월 25일 화요일	새날혁명학원·원산중등학교·해산중등학교·길주초등학교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각각 진행	중방(1/25)	사회 문화	
	北-中친선 설명절연환모임 개막식, 1.25 전영진(대외 문화연락위 부위원장)·유홍재(駐北 中대사) 등 참가下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	중통(1/25)	외교	
	박의춘 외무상, 1.25 새해 즈음 러시아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중통(1/25)	외교	
	北, 연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협조와 후원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연로자후원기금' 새로 설립	중통(1/25)	사회 문화	
	「청년동맹」중앙위 제44차 전원회의, 1.25 이용철(청년동맹1비서/보고)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	중방(1/26)	정치	
	김영남, 1.25 러시아 대통령에게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비행장' 폭탄테러 사상자 발생 관련 위문 전문	중통(1/26)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中國 외교부, 1.25 새해 즈음 '지재룡'(駐中 北 대사), '장지군'(中 외교부 부부장) 등 참가下 '北 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마련	중방(1/26)	외교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김정일,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 공연 관람	중통(1/26)	군사	
	北, △여성권리보장법(교육, 문화, 보건, 재산분야와 결혼 등 여성들의 권리보장) △아동권리보장법(사회생활, 가정 등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철도차량법(철도차량생산과 등록, 운영 등 규제) 새로 채택, 발표	중통(1/26)	정치	
	北의 對南 대화제의는 "영도자의 구상과 의지를 집약한 호소"라고 再次 강조와 '남북군사회담' 제의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군대까지 북남관계 개선의 새 년대기를 마련하는데 합세한 것"이라고 선전	조선신보 (1/26)	대남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1.26 "조선반도 정세완화와 비핵화 추진을 위해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며 유관국들에 "대화재개를 위한 용단을 내릴 것" 촉구	중통(1/26)	외교	
2011년 1월 27일 목요일	김영남, 1.27 요르단 국왕 생일 49돌 즈음 '아브둘라흐 2세'에게 축전	중통(1/29)	외교	
	北 「농근맹」중앙총 제62차 전원회의, 1.27 평양에서 리명길(농근맹위원장/보고) 등 참가下 진행	중방(1/28)	경제	
	北 안악군청년전위들, 영농전투에서선 봉대-돌격대가 되기 위한 궤기모임 1.27 오국 협동농장에서 진행	중방(1/28)	경제	
2011년 1월 28일 금요일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전달	중방(1/28)	경제	
	北 「조국전선」, 1.28 南北 △당국대화 再촉구 △국회의원 접촉협상 제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과 자유 왕래 장려 주장과 유관국들 등 '北 연합성명' 지지와 성원 호소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중통(1/28)	대남	
	駐中 北대사관(지재룡), 1.28 '왕가서' 부장·'유결일' 부 부장 등 초대下 새해 즈음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일꾼들을 위한 연회 마련	중방(1/29)	외교	
2011년 1월 29일 토요일	김영남, 1.29 '제16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 자회의(아디스아바바)' 개최 관련 참가국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에게 축전	중통(1/29)	외교	
	용약산생물공장·중앙동물원 종업원들, 1.29 김정일 현 지말씀 관철 궤기모임 진행	중방(1/30)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1월 30일 일요일	김정일, 咸南 함흥시 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1/30)	경제	
2011년 1월 31일 월요일	김책(1903.8.14~1951.1.31) 사망 60돌 중앙추모회, 1.31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	중방(1/31)	정치	
	北 '민주여성동맹' 중앙총 제59차 전원회의, 1.31 평양에서 진행	중통(1/31)	정치	
	정방산중합식료공장·사리원기초식품공장 등, 1.29-30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궐기모임 개최	중방(1/31)	경제	
	訪北 베이징신위통신산업집단공사 이사장 겸 총재 '왕정', 해당부문 일꾼을 통해 김정일에게 선물 전달	중통(1/31)	외교	
	새해 즈음 北 외무성, 1.31 류홍재(中대사) 등 초청下 駐北 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개최	중통(1/31)	외교	
北亞-태평화총, 1.31 統一部 앞으로 "남북회담들 조속 개최 요구" '전통문' 발송	중통(1/31)	대남		
2011년 2월 1일 화요일	김정일, 신흥기계공장 현지지도	중통(2/1)	경제	
	김일성 저작(품질감독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 30돌 중앙보고회, 2.1 인민문화공전에서 최영림(내각 총리)·전하철·조병주(내각 부총리)·최희정(黨 부장/보고) 등 참가下 진행	중통(2/1)	경제	
	北黨 국제부, 2.1 김영일(黨 비서/연설)·김성남(黨 부부장) 및 '류홍재'(中대사/연설) 등 참가下 새해 즈음 駐北 중국대사관 성원들을 위한 연회 개최	중통(2/1)	외교	
	駐北 러시아대사, 2.1 새해 즈음 량만길 위원장 등 초청下 평양시 인민총 일꾼들과의 친선모임 개최	중통(2/1)	외교	
	「北赤」위원장, 2.1 「韓赤」 총재 앞으로 "南北 적십자회담 조속개최 요구" '편지' 발송	중통(2/1)	외교	
	駐러 北공사참사, 2.1 러시아 외무성 아시아·국 부국장과 '조선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중통(2/2)	외교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총 '정령' 제1380호, 2.1 향산군(平北道)과 청남구(平南문덕군)에 「모범교육군(郡)구(區) 칭호」 수여	중방(2/5)	정치	
2011년 2월 2일	김정일, 당국가군대 책임일꾼들과 은하수 '설명절 음악회' 관람	중통(2/2)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수요일	김정일, 인민군 제6556군부대 지휘부 시찰	중통(2/2)	군사	
	김정일, 새로 건설한 인민군 정성의학종합연구소 현지 지도	중통(2/2)	사회 문화	
	北외무성, 설명절 즈음 駐北 유럽나라 대표부 성원들과 친선모임	중통(2/2)	외교	
	北 '최고인민회의', 2.2 南國會에 "의원접촉과 협상을 제기하는 편지" 발송	중통(2/3)	대남	
2011년 2월 4일 토요일	'최성익' 「北赤」 중앙위 부위원장, 2.4 "南北 적십자 회담 조속 개최와 북부터 이산가족상봉 재개" 再次 촉구 및 "전제조건 없는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 및 즉각적인 회담 호응" 강조	조선신보 (2/5)	대남	
2011년 2월 5일 금요일	北, 매해 30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명산온천 등 "800여 개의 정휴양소에서 휴양생활" 선전	중방(2/5)	사회 문화	
2011년 2월 6일 일요일	김정일, 중국 '호금도' 주석과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등 세계 각국 黨 및 국가영도자들에게 새해 즈음 「연하장」 발송	중방(2/6)	외교	
	금속공업부문 공업총생산액 106%, 임업성 산지통나무 생산계획 146% 및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110% 등 1월 계획 초과달성 보도	중방(2/6)	경제	
2011년 2월 7일 월요일	최영림 내각총리, 2.7 그레나다 독립 37돌 즈음 同國 수상에게 축전	중통(2/7)	외교	
	"現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南北 정치인들의 접촉과 대화필요성" 提起 및 黨利黨略을 떠난 "화해와 단합, 민족을 위한 정치인의 역할" 강조	중통(2/7)	대남	
	김정일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기념 보고회, 2.7 광범기(함남당책/기념보고) 참가자 함흥대극장에서 진행	중방(2/8)	사회 문화	
	2.8비날론연합기업소용성기계연합기업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 2.7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궤기모임 각각 진행	중방(2/8)	경제	
2011년 2월 8일 화요일	김영일(黨 비서), 2.8 駐北 독일 新任 대사 '게르하르트 티데만'과 담화	중통(2/8)	외교	
	日 자위대의 군사훈련(在外일본인수송훈련, 2.8~ 美 파견 상륙훈련 등)과 무장장비 현대화(美 F-35스텔스 전투기, 고성능순시선 도입 계획) 등 일본의 年初 군사적 움직임은 "재침과 군사대국화 야망 실현"이라고 비난	중통(2/8)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2월 9일 수요일	駐北 쿠바 대사와 몽골 대사, 2.9 自國 대사관에서 박의춘(외무상)·리룡남(무역상)·김용진(교육위원장)·김정숙(대외문화연락위원장) 및 김영일(黨 비서) 등 초대下 연회 各各 개최	중통(2/9)	외교	
	南 외교당국자의 美 國무성 부장관의 訪韓時 ‘北핵문제’ 논의와 우리 인권위의 ‘北 인권문제’ 제기(2011년도 업무계획)는 “反北핵공조, 인권모략소동”이라고 비난	중통(2/9)	대남	
	“금강산개성관광을 다시 잇고 다방면적 협력, 교류사업을 다그쳐나갈 때 평화와 통일도 앞당겨질 것” 이라고 주장	중통(2/9)	대남	
	김동제 모리타니 駐在 北대사, 2.9 駐在國 대통령 離任 방문	중방(2/17)	외교	
2011년 2월 10일 목요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3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및 「감사」 전달	중통(2/10)	군사	
	김정일 생일(1942.2.16) 관련 성, 중앙기관예술소조종합공연, 2.10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통(2/10)	사회 문화	
	김영남, 2.10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체코대사의 신임장 접수 및 담화	중통(2/10)	외교	
	박의춘 외무상, 2.10 작별 방문한 駐北 베트남대사와 담화	중통(2/10)	외교	
	北,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1만여 마리 가축 감염과 수천마리 폐사 및 전국 ‘비상방역 선포’ 보도	중통(2/10)	사회 문화	
	北 「북남군사회담 북측대표단」, 2.9 ‘南北 군사실무회담’(2.8~9, 판문점) 결렬은 “역적패당의 고의적인 대화파탄 흥계”라고 책임轉嫁와 “모든 죄행을 철저히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 ‘공보’ 발표	중통(2/10)	군사	
	北최고인민회의, 2.10 3중3대혁명붉은기(청류관 봉사과 등), 2중3대혁명붉은기(평양화장품공장 등 17개 단위) 등 수여 ‘정령’ 발표	중방(2/13)	경제	
2011년 2월 11일 금요일	김정일, 새로 건설된 ‘운산공구공장’ 현지지도	중통(2/11)	정치	
	김정일의 “조국통일 위업(조국통일3대원칙 정립, 민족대단결 5대 방침, 우리민족끼리 이념 등)은 백승의 영도”라고 칭송 및 “온 민족은 김정일을 민족대단결의 중심으로 받들 것” 선동	중통(2/11)	정치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김정일 생일(2.16) 관련 '중앙미술전시회' 개막식, 2.11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강능수(내각부총리)·안동춘(문화상/개막사) 등 참가下 진행	중통(2/11)	사회 문화	
2011년 2월 12일 토요일	백두산밀영결의대회, 2.12 김영춘·주상성·김정각·최용해·김평해 등 참가下 백두산밀영에서 진행	중통(2/12)	사회 문화	
	北노동당 대표단-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대표단 사이 회담, 2.12 김영일(黨 비서)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	중통(2/12)	외교	
2011년 2월 13일 일요일	김정일,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양산원에 '산골' 전달	중방(2/13)	사회 문화	
	北 인민보안부장(주상성)과 中공안부장(맹건주) 사이 회담, 2.13 평양에서 진행 및 '합의서' 조인	중통(2/13)	외교	
2011년 2월 14일 월요일	김정일, 2.14 中國 공안부장 접견(강석주 내각 부총리, '류흥재' 駐北 中대사 배석) 및 만찬	중통(2/14)	외교	
	北 금강군에 1,200mm(2.11, 16:00~21:00) 적설량 기록 등강원도 일대폭설로 "道內 일부지역의 농업부문을 비롯한 경제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피해 복구전개보도	중통(2/14)	경제	
	'제15차 김정일화축전' 개막식, 2.14 김기남·양형섭·강능수·안동춘(개막사) 등 참가下 평양서 개막	중통(2/14)	사회 문화	
	駐北 무관단과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 성원들 및 해외동포축하단들·재중조선인총연합회 축하단·재일본조선인축하단, 2.14 '제15차 김정일화축전'장과 만수 대창작사 각각 참관	중통(2/14)	외교	
	최영림 내각총리, 2.14 離任 駐北 베트남 대사와 담화	중통(2/14)	외교	
	'南北군사실무회담' 결렬은 "南 당국의 反北 대결정책 때문"이라고 連日 비난 및 책임轉嫁와 '對北정책 전환' 주장	중통(2/14)	대남	
	中美 등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알곡생산 급감' 예측 및 現국제시장에서 가격 대폭상승을 전하며 "올해 세계적인 식량위기 심각" 우려 持續 강조	중통(2/14)	경제	
	'지재룡' 駐中 北대사, 2.14 '호금도' 주식에게 신임장 전달	중방(2/17)	외교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김정일·정은, 黨國家軍隊 책임일꾼들과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	중통(2/15)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김정일 생일 경축 중앙보고대회(2.15)] 김영남(보고)·문경덕(평양시당책/사회) 및 黨·軍隊·國家 책임일꾼들 등참가下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중통(2/15)	사회 문화	
	김영남, 2.15 駐北 이탈리아 대사에게서 신임장 접수 및 담화	중통(2/15)	외교	
	김영남, 2.15 감비아 독립 46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2/17)	외교	
	연합뉴스 인용, 我 육군 제5보병사단의 야외전술훈련 (2.14~18, 연천군) 실시 비난 보도	중통(2/15)	대남	
2011년 2월 16일 수요일	김영남, 2.16 평양대극장에서 재일본조선인축하단(배진구 총련 부의장)과 담화	중방(2/16)	사회 문화	
	최고인민회의 '정령', 미루벌 물길공사에서 공로있는 일꾼-지원자들 '표창'	중방(2/16)	경제	
	재일조선인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2.16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중방(2/17)	사회 문화	
	김정일, 2.16 黨중앙위·黨중앙군사위·국방委 주최 생일 경축연회 참석	중방(2/17)	사회 문화	
2011년 2월 17일 목요일	김정일, 2.17 정월대보름 즈음 中대사관원들과 은하수 관현악단 음악회 관람	중통(2/18)	사회 문화	
2011년 2월 18일 금요일	김영일 黨 비서, 2.18 작별 방문한 駐北 베트남 대사와 담화	중통(2/18)	외교	
	我 「인권委」의 '북한인권기구' 설치 계획을 "남북관계 개선에 인위적 난관을 조성하는 모략소동"으로 비난 및 南北군사실무회담 결렬 책임 持續 전가와 "동족대결정책 중단" 촉구	중통(2/18)	대남	
2011년 2월 19일 토요일	北, "화학제품의 질이자 경공업제품의 질"이라며 '화학공업이 경공업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 강조	중방(2/19)	경제	
	통일부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방북신청 부결과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남북협력사업 중단 및 통일부장관 발언(개성공업지구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음 등)을 비난하며 "南 당국이 부당한 조건과 구실로 북남협력 사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	중통(2/19)	대남	
	김영남, 2.19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에게 생일 87돌 관련 축전	중통(2/20)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2월 20일 일요일	김계관(외무성 제1부상), 2.20 中國 장즈진(張志軍) 외 교부 상무부부장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	중통(2/20)	외교	
2011년 2월 21일 월요일	김영남·박의춘, 2.21 만수대의사당에서 訪北 中외교부 상 무부부장(‘장지군’) 일행과 각각 담화	중통(2/21)	외교	
	한덕수(前총련상임위 의장) 사망10돌 중앙추모회, 2.21 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추모사), 김양건(黨비서), 강능수(내각 부총리), 배진구(총련상임위 부의장)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방(2/21)	사회 문화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김정일, 원군사업과 사회를 위해 모범을 보인 일꾼들에게(숙천군 열두삼천농장 작업반장 곽수철, 평남 농촌경리위 노동자 이정길 등) 「감사」 전달	중방(2/22)	경제	
	김정일, 2.22 故 남순희(평양교원대학 학장)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2/22)	사회 문화	
	남포-평양 사이 海水수송관 건설공사 착공식, 2.22 박병종(평양市 인민위 1부위원장/착공사) 등 참가下 현지 진행	중통(2/22)	경제	
	김영남, 2.22 離任 駐베트남 ‘레 반 꼬’ 대사와 담화	중통(2/22)	외교	
2011년 2월 23일 수요일	박의춘 외무상, 2.23 작별 방문한 駐北 말레이시아 대사와 담화	중통(2/23)	외교	
	駐北 팔레스티나 대사, 2.23 김정일 생일 즈음 양형섭·김용진(교육위원장)·현상주(직총중앙위원장) 등 초대下 연회 마련	중통(2/23)	외교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2.23 ‘모범지방공업군, 시, 구 역칭호를 제정함’에 대한 정령 발표	중방(2/25)	정치	
	[北국방위검열단 진상공개장(2)] 北의 연평도 포격도 발은 “역적패당이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해 우리(北) 군대에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을 강요해 나선 계획적 도발 때문”이라며 ‘南側의 포격에 대한 대응포격’ 再次 주장 및 “서해해상에서의 충돌과 분쟁방지 위한 공정한 해상경계선 설정과 그 전까지의 분쟁수역 → 평화수역” 요구	중통(2/23)	대남	
	최영림 내각 총리, 2.23~24 희천발전소건설사업 방문 지도	중통(2/27)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2월 24일 목요일	北 문화성, 안동춘(문화상/기념보고)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지도 40돌 기념 보고회 진행	중방(2/24)	사회 문화	
	“과거청산은 조일관계 개선의 중핵이며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일본의 ‘先과거청산 책임과 의무이행’ 持續 촉구	중통(2/24)	외교	
	北대표, 2.24 제네바군축회의 전원회의 연설에서 “핵 군축을 실현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 강조	중통(3/2)	군사	
2011년 2월 25일 금요일	김영남, 2.25 재일본조선인 축하단(단장: 배진구 총련 중앙상임궤 부의장)과 담화	중통(2/25)	사회 문화	
	‘국토환경부문 및 연관단위 일꾼회의’, 2.25 최영림(내 각총리)·전병호·김기남(黨비서)·문경덕(평양시黨책임비 서)·전하철(내각부총리/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 에서 진행	중통(2/25)	경제	
	조선인민내무군 홍순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희천발 전소 물길굴 공사 완료	중방(2/25)	군사	
	韓美의 ‘北 추가도발 가능성’ 제기는 “지속적인 대결정 책추진 구실마련, 북침전쟁도발 책동에 박차를 가하려 는 反北 모략선전”이라며 “그 배후는 미국”이라고 비난	중통(2/25)	대남	
	김영남, 2.25 불가리아 국경질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3/2)	외교	
2011년 2월 26일 토요일	‘선군청년총동원대회’, 2.26 김영남(黨중앙궤 축하문 전달)·최영림(내각총리)·김기남·최룡해(黨비서)·리영철 (청년동맹1비서/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방(2/26)	사회 문화	
	黨과 혁명의 근본이념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라며 김 정일의 선군영도따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건 설 △경공업과 농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기 위한 일심단결” 力說	중통(2/26)	정치	
2011년 2월 27일 일요일	김정일, 새로 개건된 봉화예술극장에서 조선인민내무 군협주단 개관공연 관람	중통(2/27)	사회 문화	
	北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2.27), 남측의 ‘키 리 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강행時 “서울불바다전과 같은 전면전 대응不俟” 위협	중통(2/27)	대남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南北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南 민간단체들의 ‘對北 전단지 살포’ 등 “反北 심리모략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 등 발원지에 대해 직접조준격파사격이 단행될 것” 위협 「통지문」 2.27 발표	중통(2/27)	대남	
2011년 2월 28일 월요일	김영남, 2.28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말레이시아 대사와 離任 담화	중통(2/28)	외교	
	北지총 중앙위와 南 한국노총·민주노총, 2.28 ‘韓-美 합동군사연습’ 중단 요구 ‘노동자평화선언문’ 발표	중통(2/28)	대남	
2011년 3월 1일 화요일	北 ‘합영투자위원회’ 리성혁, “조선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 영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고 강조	중통(3/1)	경제	
	최영림 내각총리와 박의춘 외무상, 3.1 新任 요르단 총리와 외무상에게 각각 축전	중통(3/3)	외교	
	김항식 국무총리의 통일문제 발언(2.25, 現정부의 對北정책은 흡수통일 생각하지 않음) 관련 “남측의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그의 말이 당국의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이라면서도 “그 말은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	중통(3/1)	대남	
2011년 3월 2일 수요일	駐北 中대사관, 3.2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中朝친선 설명절 영화감상회” 개최	중통(3/2)	외교	
	태천군(平北) ‘운흥협동농장’ 등에 黨과 내각 名義 「표창장과 2010년 사회주의경쟁 순회 우승기」 수여식, 3.2 최룡해(黨비서)·리경식(농업상)·리명길(“농근맹” 위원장/경쟁총화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	중방(3/3)	경제	
2011년 3월 3일 목요일	김정일,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 현지지도	중통(3/3)	경제	
	양형섭, 3.3 만수대의사당에서 訪北 독일 연방의원(유르겐 클림케)과 담화	중통(3/3)	외교	
	北외무성, 3.3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쿠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중통(3/3)	외교	
	「北赤」 중앙위 대변인 담화(3.3), “北표류주민 31名 전원을 배와 함께 해상을 통해 무조건 즉시 송환” 요구	중통(3/3)	대남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3월 4일 금요일	전국선군시대 농근맹열성자회의 호소문에 호응하는 '평양시 농업근로자들의 꺾기모임', 3.4 리명길(농근맹 중앙위원장), 양만길(평양시 인민위원장) 등 참가下 평양체육관광장에서 진행	중통(3/4)	경제	
	北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 3.4 통일부의 민간단체 對北 통신접촉 차단을 "반인권적, 반통일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각계층의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 보장" 촉구	중통(3/4)	대남	
2011년 3월 5일 토요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3.5 포르투갈공산당 중앙위 앞으로 창건 90돌 축전	중통(3/5)	외교	
	李대통령의 3.1절 기념사 對北발언(열린 마음, 대화할 준비 등)을 '대화파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語不成說'로 비난하며 "외세와의 전쟁연습 중지, 대결정책 철회, 대화제의에 조건없이 응해 나올 것" 촉구	중통(3/5)	대남	
2011년 3월 6일 일요일	김정일,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	중통(3/6)	사회 문화	
	北-美 군부 대좌급회담 북측 단장, 3.6 美軍측에 "北 표류주민의 귀순 두둔 '유엔사 특별조사결과' 발표 비난 및 전원 송환 촉구" 항의통지문 발송	평방(3/6)	외교	
2011년 3월 7일 월요일	'전국상업일꾼회의', 3.7 최영림(내각총리)·안정수(경공업상)·조영철(식료일용공업상)·량의경(국가가격제정 쟁 위원장)·백룡천(중앙은행 총재)·김봉철(상업상/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통(3/7)	경제	
	조성걸(北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 "평양관광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양의 명승고적들과 음식·문화에 술분야 등 소개 및 誘致선전	중통(3/7)	경제	
	김정일과 김영남, 3.7 시리아 3월8일혁명 48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각각 축전 발송	중통(3/7)	외교	
	김정일, 3.7 동평양대극장에서 「3.8국제부녀절」즈음 北-러예술인들의 합동공연 관람	중통(3/8)	사회 문화	
	「北赤」위원장, 3.7 '北주민 송환문제 협의' 위해 3.9 「관문점」 전 중립국감독위원회실에서 '南北 적십자실무접촉' 제의 對南 통지문 발송	중통(3/7)	대남	
2011년 3월 8일 화요일	'국제부녀절' 101돌 기념 중앙보고회, 3.8 양형섭, 최룡해(黨비서), 김락희(내각부총리), 노성실(여맹위원장/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통(3/8)	사회 문화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美國 AP통신사 총사장(토마스 컬리)과 일행, 3.8 평양 도착	중통(3/8)	사회 문화	
	北, 쿠바정부 수상(피델 카스트로)의 訪北日(1986.3.8) 즈음 “兩國관계 발전에 쌓아올린 김일성 업적 선전 및 北-쿠바친선 강화발전에 필요한 모든 노력 다할 것” 등 강조	중통(3/8)	외교	
	「조국통일연구원」, 3.8 백서를 발표하여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닌 선제 공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 핵시험전쟁연습”이라고再次 비난	중통(3/9)	대남	
2011년 3월 9일 수요일	北 첫 우표발행 65돌 ‘조선우표전시회’(5,600여종 전시) 개막식, 3.9 류영섭(체신상) 등 참가下 조선우표전시관에서 진행	중통(3/9)	사회 문화	
	‘어랑천1호발전소’ 발전기들의 “자동측정 및 조종체계” 도입 및 ‘희천1호발전소’ “압력관로의 가조립” 완료 보도	중방(3/9)	경제	
	北 표류주민 31명 가족성원들, 3.9 南 통일부장관과 「韓赤」총재에게 “4명 가족들의 직접대면과 전원 송환 요구” 항의 편지 발송	중통(3/9)	대남	
2011년 3월 10일 목요일	김정일, 함흥시 공장-기업소 현지지도 및 「감사」 전달	중방(3/10)	경제	
	「전국여맹 선군문화 열성자회의」, 3.10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남·최룡해(黨비서)·전하철(내각 부총리)·로성실(여맹 위원장/보고) 등 참가下 ‘전국 여맹원들과 여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등 진행	중방(3/10)	사회 문화	
	北-베트남친선협회 黃北道委 결성식, 3.10 조동철(黃北道인민委 부위원장)·박경일(北-베트남친선협회 부위원장) 등 참가下 사리원에서 진행	중통(3/10)	외교	
	김영남, 3.10 모리셔스 독립 43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3/11)	외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1461호, 3.10 송미란(노동신문사 논설원)에게 ‘김일성상’ 수여	중통(3/12)	정치	
	北 대표, 3.10 제네바 군축회의 전원회의 연설에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 △세계적인 핵군축 △평화적 핵 활동 보장 △핵무기사용금지 국제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 강조	중통(3/15)	군사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김정일, 平南 안주시 '정수복'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 상 전달	중통(3/11)	사회 문화	
	선군정치는 “조선반도 전쟁위험을 막고 민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평화수호의 정치”라고 선전 및 “자위적 국방 력 강화의 정당성과 자주통일·평화번영을 위한 全民 투 쟁” 煽動	중통(3/11)	정치	
	김영남, 3.11 美 AP통신사 총사장(토마스 컬리)과 담 화 및 귀국	중통(3/11)	사회 문화	
	최영림·박의춘, 3.11 아일랜드 新任 수상과 외무상에게 各具축전	중통(3/11)	외교	
2011년 3월 12일 토요일	최영림(내각총리), 3.11 조병주(내각 부총리 겸 기계공 업상) 등 참가下 장산광산사업과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평양시의 여러 상업봉사단위들 현지요해	중통(3/12)	경제	
	김정일, 3.12 최로사(노병시인) 영전에 화환 전달	중통(3/12)	사회 문화	
	韓日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 실무접촉 착수 관 련 “韓美日 사이의 3각군사동맹이 조작되면 아시아와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더욱 모험적으로 추 진될 것”이라고 주장	평방(3/12)	대남	
2011년 3월 13일 일요일	사리원시 미국협동농장, 3.12 김창룡(황해북도당위 비 서)·장경진(리당비서/기념보고) 등 참가下 김정일의 현 지지도 기념보고회 진행	중방(3/13)	경제	
	김정일, 조선인민군 해군협주단의 공연 관람	중통(3/13)	군사	
2011년 3월 14일 월요일	平北(소농기구 1만 8,700여점 등)과 咸南(소농기구, 포 장용기 18만 5,000여점 등) 등 전국 道·市·郡들과 각 기 관-기업소들의 농촌지원 전개	중통(3/14)	경제	
	'함흥모방직공장' 등 3월 경공업성적, 지난해 대비 1.2 배 성장	중방(3/14)	경제	
	박의춘 외무상, 3.14 러시아 외무성 부상(알렉세이 보 로답킨) 일행과 담화 및 김정일에게 전하는 선물 인수	중통(3/14)	외교	
	「北赤」위원장 장재언, 3.14 '日 동북부 대지진' 관련 日本 적십자사 위원장 '다다데루 고노에'에게 위로 전문	중통(3/14)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3.15 “양강도 대홍단군에 국 토환경 모범군 칭호 수여” 정령 발표	중방(3/18)	정치	
	北 외무성 대변인, 3.15 러시아 외무성 부상의 訪北 (3.11~14) 관련 중통기자회견을 통해 우리(北)는 러시 아 측이 제시한 “러-北-南 ‘3자 경제협조계획’ 실무협 상과 무조건 6자회담 참가 긍정검토 용의” 시사	중통(3/15)	외교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김정일, 해군 제597군부대 관하 공장 시찰	중통(3/16)	군사	
	北 국방위 결정 제08호, 3.16 인민보안부장 ‘주상성’ 신 병관계로 해임 결정	중통(3/16)	정치	
	北, 김정일 저작(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토지정리 의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자) 발표 7돌 (2004.3.16) 즈음 “올해 식량증산투쟁 중요성” 강조	중방(3/16)	경제	
	北, 駐파키스탄 대사 ‘노경철’ 임명에 대한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 정령 발표	중통(3/16)	정치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권승철 駐쿠바 北대사), 3.16 멕시코 노동당 전국조정위 조정자 당수(알베르또 아나 야 구띠에레스) 접견	중방(3/24)	외교	
2011년 3월 17일 목요일	김정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및 가스화 건설자들이 올 린 편지에 ‘친필서한’(2011년 3월10일 김정일) 전달	중방(3/17)	경제	
	北 노동당 중앙위, 3.17 라오스 인민혁명당 제9차대회 앞으로 축전 발송	중통(3/17)	외교	
	北, ‘레 반 꼬’ 駐北 베트남 대사에게 ‘친선훈장’ 제1급 수여	중통(3/17)	외교	
	南 당국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및 ‘남북교류협력진 흥원’ 설립 움직임은 “협력교류단체들의 손발을 더욱 엮어매고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장치완비 목적”이라고 持續 비난	중통(3/17)	대남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北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 “4월7일 평양에 서 개최” 공시	중통(3/18)	정치	
	駐北 러시아 대사, 3.18 ‘北-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 에 관한 협정체결’ 62돌 즈음 리룡남(무역상)·공석웅(외 무성 부상)·문재철(대외문화연락처 부위원장) 등 초청 下 연회 개최	중통(3/18)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쿠바駐在 北 대사(권승철), '새 사회 건설에 관한 세계 정당들의 제15차 토론회' 참가 및 멕시코 인민사회 당 총비서(3.18)·엘살바도르 민족해방전선 총조정자(3.17)와 담화	평방(3/25)	외교	
2011년 3월 19일 토요일	김정일, 정주영(전 현대그룹 명예회장) 사망 10돌 추모 '구두친서' 발송	중통(3/19)	정치	
	北 각지 사찰들, 3.19(10시) 열반절 기념 '조국통일기원법회' 개최	중통(3/19)	사회 문화	
	北 지진국, 地震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전군중적 감시 체계 완비, 주요 지진관측소의 설비 보강, 신문-TV 등을 통한 지진·화산 상식자료 전파 등의 대책 수립	중통(3/19)	사회 문화	
2011년 3월 20일 일요일	김정일이 펼치는 "일심단결의 광폭정치는 전당, 전군, 전민이 철통같이 뭉친 가장 위력한 단결"이라며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계승되는 불패의 일심단결"이라고 강조	중통(3/20)	정치	
	김영남, 3.20 나미비아 독립 21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평방(3/20)	외교	
	北 '서해지구 군사실무책임자', 3.20 미군의 "東西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일대 도발행위 감행" 주장과 "인명피해를 포함한 초래될 모든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 위협 '對南통지문' 발송	중통(3/20)	대남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함흥모방직공장, 비날론띠섬유에 의한 실생산체계완성으로 비날론천생산 시작	중통(3/21)	경제	
	김영남, 3.21 지진과 해일 피해 관련 총련의장 '서만술' 앞으로 위문전문	중통(3/21)	외교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최영림 내각총리, 만경대남새전문농장·칠골남새전문농장·리현남새전문농장 시찰 및 평양시의 남새생산 대책 마련	중통(3/22)	경제	
	김영남과 최영림 내각 총리, 3.22 '파키스탄의 날' 즈음 同國대통령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	중통(3/22)	외교	
	北 외무성 대변인, 3.22 기자회견을 통해 "美國의 對리비아 군사공격(3.19)은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난폭한 침해, 반인륜범죄로 즉각 중지" 촉구 및 "자위적 국방력 강화 정당성" 주장	중통(3/22)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3월 23일 수요일	은율광산에 '대형 권양기 설치공사 완공' 준공식, 3.23 전하철(내각부총리)·김태봉(금속공업상)·로배권(黃北黨 책임비서/보고) 등 참가下 진행	중방(3/24)	경제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김정일, 수중체조무용모범출연 관람 및 「감사」 전달	중통(3/24)	사회 문화	
	김정일, 軍 무장장비부문일꾼 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대회성과 축하	중통(3/24)	군사	
	김정일, 재일동포들에게 지진과 해일피해 관련 위문금 50만 \$ 전달	중통(3/24)	외교	
	北, 3.24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2돌 즈음 駐北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진행	중통(3/24)	외교	
	北, '세계 결핵의 날' 관련 행사 3.24 인민대학습당에서 개최	중통(3/24)	사회 문화	
	北 군사대표단(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베트남 국방성 대표단(웬찌빙 국방성 부상) 사이 회담, 3.24 베트남 국방성 청사에서 진행	중통(3/30)	군사	
2011년 3월 25일 금요일	김영남과 최영림 내각총리, 3.25 방글라데시 독립 40돌 즈음 同國 대통령과 수상에게 각각 축전	중통(3/25)	외교	
	北 공보위 대표단(단장: 정영철 부위원장), 3.25 라오스 수상과 담화	중방(3/26)	외교	
	北 평양 베아링공장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3.25 조병주(내각 부총리 겸 기계공업상)·림정규(평양시당 비서) 등 참가下 진행	중통(3/26)	경제	
	駐中 北대사(지재룡), 3.25 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가경림) 의례 방문	평방(3/27)	외교	
	최영림 내각총리, 3.25 농업과 학원사업을 현지에서 了解하고 "관계부문일꾼 협의회를 조직, 농업과학기술발전을 통해 '농업생산 대혁신'을 일으킬 것" 강조	중통(3/27)	경제	
2011년 3월 27일 일요일	김정일, 신설 국립연극극장에서 경희극 '산울림' 관람	중통(3/27)	사회 문화	
	北 '석탄공업대회', 3.27 최영림·김영춘·전병호·김기남·노두철(내각부총리/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방(3/27)	경제	
2011년 3월 28일 월요일	'석탄공업대회' 참가자들, 3.28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黨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과 기념촬영 및 만경대와 대성산혁명열사능 참관 動靜 보도	중통(3/28)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평성시(平南) 인민쫘, 市 안의 거리와 마을에 가로등 설치사업 진행	평방(3/28)	사회 문화	
	몽골 대통령 특사(‘르. 뿌레브쑤렌’ 대통령 대외정책고문)와 일행, 3.28 평양 도착과 北 정부 주최 연회 마련	중통(3/28)	외교	
	김영남, 3.28 미얀마의 지진피해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전문	중통(3/28)	외교	
	北외무성 대변인, 3.28 중통기자 답변을 통해 UN인권 이사회 제16차 회의에서 ‘對北인권결의안’ 채택은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 및 ‘선군정치’ 다짐	중통(3/28)	외교	
	北 군사대표단(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3.28 캄보디아 국방성대표단과 同國 국방성청사에서 회담	중통(3/29)	군사	
	金父子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3.28 량홍주(平南道黨 비서) 등 참석下 진행	중방(3/29)	경제	
	北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일행, 3.28 英國 국회 상하 양원의장 및 외무성 부상 등과 담화	중통(3/30)	외교	
2011년 3월 29일 화요일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박의춘(외무상), 3.29 訪北 몽골 대통령 특사 일행과 담화	중통(3/29)	외교	
	北, 3.29 개성시에 ‘모범교육시 칭호’ 수여함에 대한 정령 제1531호 발표	중방(3/29)	정치	
	황철남 라선시 인민쫘 부위원장, “라선경제무역지대가 東北亞에서 중요한 국제화물중계지, 수출품가공지, 국제적인 금융 및 관광지로 꾸려질 것”이라고 강조	중통(3/29)	경제	
	백두산화산 공동연구 위한 南北 실무접촉, 3.29 문산에서 진행	중통(3/29)	대남	
2011년 3월 30일 수요일	김정일, 평양산원에 ‘5t의 산꿀과 최신의료기구’ 전달	중통(3/30)	사회 문화	
	北 ‘선군체육열성자회의’, 3.30 최룡해(黨비서), 강능수(내각 부총리), 박명철(체육상) 등 참가下 인민문화 궁전에서 진행	중통(3/30)	사회 문화	
	「北赤」 중앙위원장, 3.30 「韓赤」 총재에게 “귀순자 4人 송환문제 논의 ‘남북적십자실무접촉’ 제의 통지문” 발송	중통(3/30)	대남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3월 31일 목요일	박의춘 외무상, 3.31 駐北 체코 대사과 담화	중통(3/31)	외교	
	北 [국방총 검열단] 대변인, 3.31 ‘담화’를 통해 ‘北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남측 책임”이라고 주장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가운데 “대화, 전쟁 中 兩者擇一하라”고 강변	중통(3/31)	대남	
	北 군사대표단(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3.31 라오스 국방성 대표단과 회담	중통(4/2)	군사	
2011년 4월 1일 금요일	黨·최고인민회의·내각, “2011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김정숙 평양제사공장, 남포경공업공장’ 등 386개 공장-기업소에 「사회주의경쟁 공동순회 우승기」 수여 결정	중방(4/1)	경제	
	北赤 위원장, 南北 赤十字 실무접촉 거부 관련 韓赤 총재에게 응해 나올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 再발송	중통(4/1)	대남	
	최영림 내각총리, 3.30~4.1 북부지구 무산광산연합기업소·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석성탄광·룡전과 수농장 등 현지방문 요해	중통(4/4)	경제	
2011년 4월 2일 토요일	양형섭, 4.2 만수대의사당에서 2011년 여자월드컵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대표단과 담화	중통(4/2)	사회 문화	
	北, 남포-평양사이의 바닷물수송관 건설 진행	평방(4/2)	경제	
2011년 4월 3일 일요일	김정일, 4.3 80회 생일을 맞은 양정호(비전향장기수)에게 생일상 전달	중통(4/3)	사회 문화	
2011년 4월 4일 월요일	김영남, 4.4 베닌공화국 대통령에게 再選 축전	중통(4/4)	외교	
	4.4 日 당국의 2011년 새 중학교 교과서들에 대한 ‘독도영유권’ 주장 서술 등 ‘독도강탈채동’을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 침략범죄”라고 비난	중통(4/4)	외교	
	北 용양광산 창립(1961.4.5) 50돌 기념보고회, 4.4 광범기(咸南道 黨 책임비서), 리찬화(단천지구 광업총국장) 등 참가下 현지진행	중방(4/5)	경제	
	박의춘 외무상, 4.4 新任 모리타니 외무 및 협조상 ‘하마디 울드 하마디’에게 축전	중통(4/5)	외교	
2011년 4월 6일 수요일	김정일, 자강도내 공장기업소(자강도제련소, 압록강다리아공장) 현지지도	중방(4/6)	경제	
	김정일, 자강도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 관람	중통(4/6)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보통교육법' 새로 채택 발표	중통(4/6)	정치	
	태양절(4.15/김일성 생일) 관련 전국 예술선전대 종합 공연 및 경연, 4.6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통(4/6)	사회 문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4.6), "강성대국건설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평양베아링공장 등과 허환철 등 12명에게 「김일성훈장」 수여	중통(4/8)	정치	
	多方面의 北-美 접촉(北 경제대표단 訪美, 비공식 토론회, '카터' 前 대통령 訪北 예정 등)은 "北-美 공식 대화 재개를 대비한 작업"이라고 강조 및 "北의 '통이 큰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 일괄타결 입장 불변" 代辦과 南側에 "교착상태 해결을 위한 兩者擇一" 촉구	조선신보 (4/6)	외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4.6), 조순조강철부 등 "공로있는 명예교수, 연구사, 창작가들"에게 「김일성상」 수여	중통(4/8)	정치	
	최영림 내각총리, 4.6 중앙경공업제품 견본관에 전시한 各 道 종합식료공장 제품전시회장 참관 및 '류경호텔' 건설정형 현지에서 요해	중통(4/11)	경제	
2011년 4월 7일 목요일	김정일, 강계시 공장들(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강계고려약공장) 현지지도	중통(4/7)	경제	
	北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회의」, 4.7 만수대의 사당에서 진행	중통(4/7)	정치	
	세계 보건의 날 즈음한 행사, 4.7 보건성·농업성·국제기구 대표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	중통(4/7)	사회 문화	
	지재룡 駐中 北대사, 4.7 '리장춘' 中 黨정치국 상무위원 의례방문	평방(4/8)	외교	
2011년 4월 8일 금요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18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4.8 리영호(軍총참모장/보고)·문경덕(평양시黨 책임비서/사회) 등 참가下 4.25문화회관에서 진행	중방(4/8)	정치	
	北 [亞-태평화위] 대변인, 4.8 "現代의 금강산관광 독점권 효력 취소" 「담화」 발표	중통(4/8)	대남	
	北 [조선중앙통신사논평(4.8)], 日 정부의 '對北제재 조치 1년 연장' 결정(4.5/각료회의) 관련 "對北 적대의 식이 골수에 찬 자들만이 감행할 수 있는 가소롭고 철면피한 행위"라고 반발	중통(4/8)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4월 9일 토요일	김정일, 자강도내 공장기업소(2월제강종합기업소·자강기계공장·2.8기계종합공장) 현지지도	중통(4/9)	경제	
	‘北 어민 4명 귀순 및 기획탈북’(3.24/탈북자 6명 밀입국) 관련 “남북관계 파탄을 몰아온 책임에서 벗어나고 우리(北)의 국제적 영상을 흐리게 하려는 계획적 유인 납치”라고 왜곡	중통(4/9)	대남	
2011년 4월 10일 일요일	김정일, 金日成 생일 즈음 日貨 1억 6,520만¥의 재일 동포자녀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총련에 전달	중통(4/10)	사회 문화	
	‘제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식, 4.10 양형섭(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강능수(내각 부총리)·안동춘(축전조직위원장·문화상·개막사)·양만길(평양시 인민체육위원장) 등 참가下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진행	중통(4/10)	사회 문화	
2011년 4월 11일 월요일	청년전위들의 맹세모임, 4.11 최용해(黨 비서) 참가下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진행	중통(4/11)	정치	
2011년 4월 12일 화요일	김정일, 원군사업에 모범을 보인 최성호 무역성 국장 등에 감사	중방(4/12)	경제	
	김일성의 정치사상·군사경제강국 건설 토대 마련 등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업적과 김정일의 계승발전” 칭송	중통(4/12)	정치	
	北최룡해(黨 비서), 4.12 만수대의사당에서 중화전국 총공회(‘장영기’ 부주석) 대표단과 담화	중통(4/12)	외교	
	北에서 올해 현재까지 전국평균 강우량 20.1mm로(회령시 0.1mm) 평년의 33%, 1977년 이래 가장 적은 가뭄현상 持續 및 “농작물 재배에 부정적 영향” 보도	중통(4/12)	경제	
	김정일, 4.12 軍 지휘성원들 승진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56호’ 하달	중통(4/13)	정치	
	‘백두산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2차 南北실무접촉’, 4.12 개성에서 진행	중통(4/13)	대남	
2011년 4월 13일 수요일	리선공업회사 사장 이철수, “리선경제무역지대에 경공업 지구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수출품가공무역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 속에 세계 여러 나라 기업체들이 리선공업회사에 투자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선전	중통(4/13)	경제	
	‘김일성 탄생 100돌 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꾼협의회’, 4.13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김정숙·문재철(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	중통(4/13)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北 黨대표단(박근광 부부장)-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 통일당 대표단 회담, 4.13 평양에서 진행	중통(4/13)	외교	
	김영남·최태복, 4.13 프랑스 인민운동동맹출신(대중운동연합, UMP) 국회 하원 의장 ‘장 프랑쑤아 말썰’ (제 27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명예손님) 일행과 담화	중통(4/13)	외교	
	김기남·김영일(黨 비서), 4.13 ‘국제김일성기금 이사장’ 일행 및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통일당 대표단과各有各 담화	중통(4/13)	정치	
2011년 4월 14일 목요일	김정일, 6.18건설돌격대 지원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4/14)	경제	
	北,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를 “2010년 11월 反공화국 범죄혐의로 체포하여 해당기관에서 조사 완료 및 재판 기소 준비中” 보도	중통(4/14)	정치	
	김일성 생일 기념 중앙보고대회, 4.14 김영남 보고下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중통(4/14)	사회 문화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4.14 최태복·양형섭·최룡해·문경덕·이용철(「청년동맹」1비서/보고) 등 참가下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진행	중통(4/14)	사회 문화	
	김영일, 4.14 네팔전국준비위 위원장 및 멕시코노동당 전국조정위 조정자와 담화	중통(4/14)	외교	
2011년 4월 15일 금요일	北, 4월 15일부터 ‘조선의 소리’ 인터넷 홈페이지 (WWW.VOK.REP.KR) 개설	중방(4/13)	사회 문화	
	김영남, 4.15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국제준비위’ 책임일꾼협의회 참가 외국손님들과 담화	중통(4/15)	외교	
	양형섭, 4.15 만수대의사당에서 일-조우호문화교류 대표단과 담화	중통(4/15)	외교	
	北 인민보안부 대표단(단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베트남公安성 대표단 사이 회담, 4.15 평양에서 진행	중통(4/15)	외교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4.15 ‘국가품질감독국’을 ‘국가품질감독위원회’로 변경	중통(4/17)	경제	
	‘옥류관·모란각·개선청년공원 종합식당’ 등 평양의 급양봉사기관들, 4.15 ‘닭고기밀쌈’ 등 “고급요리 봉사시작” 선전	중통(4/18)	사회 문화	
2011년 4월 16일	김정일, 김일성 생일 즈음 제10215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4/16)	군대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토요일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상보(4.16)] △南 당국은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 장본인, △관광파탄책동은 남북합의에 대한 위반, △금강산국제관광조치는 합법적 주권행사"라고 주장	중통(4/16)	대남	
	김정일·김영남, 4.16 시리아 독립 65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4/16)	외교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北, 4.18 단군민족통일협의회 성원들 참가下 '어천절(단군이 승천한 날)' 기념행사 진행	중통(4/18)	사회 문화	
	박의춘 北 외무상, 4.18 新任 몰디브 외무상 '아흐메드 나셈'에게 축전	중통(4/18)	외교	
	北 「반제민전」 중앙위 선전국, 4.18 南 '4.19혁명' 51돌 즈음 "△친미보수패당의 사대매국과 전쟁책동 분쇄, △남북관계를 풍지박산낸 동족대결 정권 파멸,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심판" 등 선동 '4월투쟁선언' 발표	중통(4/20)	대남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김영남, 4.19 만수대의사당에서 재일본조선인 대표단(단장: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장)과 담화	중통(4/19)	외교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김정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4/20)	경제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김정일, 김책제철연합기업소·수성천종합식료공장 현지 지도	중통(4/21)	경제	
	김정일의 '모범기대창조운동' 발기 50돌 기념 중앙보고회, 4.21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통(4/21)	사회 문화	
	驍北 이란 대사, 4.21 김일성 생일 즈음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리룡남(무역상)·정영수(노동상)·김정숙(대외문화연락처 위원장) 등 초대下 연회 개최	중통(4/21)	외교	
2011년 4월 22일 금요일	김정일, 혜산청년광산 현지지도	중통(4/22)	경제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26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중통(4/22)	군사	
	김정일, 라진조선소 현지지도	중통(4/22)	경제	
	인민무력부, 4.22 박재경(인민무력부 부부장) 참가下 驍北 무관단을 위해 연회 마련	중통(4/22)	사회 문화	
	김영남, 4.22 만수대의사당에서 몽골인민당 대표단과 담화	중통(4/22)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김영남, 4.22 나이지리아 및 지부티 대통령에게 再選 축전	중통(4/22)	외교	
	[南北장령급군사회담 북측단장 통지문(4.22)] “對北전단 살포지역에 대한 조준격파범위를 임의의 시각, 임의의 지역에 가하는 전면격파사격으로 넓히겠다”고 위협	중통(4/22)	대남	
	[北赤중앙위원장 통지문(4.22)] 「韓赤」 총재에게 ‘北 귀순주민 4명’ 대면확인 및 송환문제 협의를 위한 ‘南北 적십자실무접촉’ 再次 제의	중통(4/22)	대남	
2011년 4월 23일 토요일	김정일, 성진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4/23)	경제	
	['조평통' 서기국비망록(4.23)] 南당국은 “남북대화의 파괴자, 유린자”라며 “대화를 귀중히 여기지만 남측이 끝까지 외면한다면 대화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 하라”고 주장	중통(4/23)	대남	
2011년 4월 24일 일요일	김정일, 함경남도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4/24)	경제	
	중앙보고대회, 4.24 김영남·최영림·이영호·김영춘(보고)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통(4/24)	사회 문화	
2011년 4월 25일 월요일	김정일, 공훈국가합창단의 軍 창건 경축공연 관람	중통(4/25)	군사	
	김영남, 4.25 탄자니아 공화국 창건 47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4/25)	외교	
	北 조국통일연구원, 4.25 “南 당국의 反인민·反민족적 악정으로 각계층의 분노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며 ‘現 정부 집권 3년’ 왜곡 ‘민심백서’ 발표	중통(4/25)	사회 문화	
2011년 4월 26일 화요일	제26차 중앙과학기술축전, 4.26 최태복(黨 비서)·전하철(내각부총리)·장철(국가과학원원장)·김용진(교육총위원장) 등 참가下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	중통(4/26)	사회 문화	
	통일부장관의 對北발언(‘조선반도 안보상황 불투명하고 불안정’, ‘사과와 태도변화’ 등) 관련 “파렴치한 생역 자·악랄한 도발”이라며 “잇달은 대결망발은 저들이 처한 궁색한 처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으로 비난	중통(4/26)	대남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北, “올해는 ‘김일성조선 100년사가 총화되는 해’이자, 2012년을 앞둔 결정적 시기”라며 畵民에게 “2012년 강성대국 선포의 포성을 울리기 위한 최후 결사관철 투쟁” 독려	중통(4/27)	정치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김영남 상임위원장, 4.27 만수대의사당에서 ‘엘더스’(The Elders) 대표단과 담화 및 김정일에게 보내는 선물접수	중통(4/27)	외교	
2011년 4월 28일 목요일	김정일,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 김원일·수남소학교장 박광희 등에게 70돌 생일상 전달	중통(4/28)	사회 문화	
	前 美대통령 ‘지미 카터’ 단장 등 ‘엘더스’ 대표단, 4.28 평양 출발 및 비행장에서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 전송	중통(4/28)	외교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한 21명에게 감사 전달	중방(4/28)	경제	
	北 지재룡 駐中대사, 4.28 駐在國 부주석 ‘습근평’(習近平) 의례방문	중통(4/29)	외교	
2011년 4월 29일 금요일	최영림 내각총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방문 및 “비료생산정형 요해” 보도	중통(4/29)	경제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족, 4.29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설’ 「정령 제1,618호」 발표	중통(4/29)	대남	
2011년 4월 30일 토요일	北, 黃海南道 농업근로자들에게 “나라의 쌀독을 지켜선 책임감, 연평도에서 날아온 원수의 포탄을 막아낸 기세로 식량문제 해결에서 결정적 돌파구를 열어 강성대국의 풍년가을을 안아오자”고 농업생산 총공격전 독려	중통(4/30)	경제	
2011년 5월 1일 일요일	김영남·최영림·양형섭 등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내각·성·중앙기관·黨·정권기관 일꾼 등, 5.1 평양화학발전 연합기업소 등 축하 방문 등 노동자들과 「5.1절」기념 ‘중앙보고대회’, 5.1 平南 안주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진행	중통(5/1) 중통(5/1)	경제 경제	
2011년 5월 2일 월요일	최태복(최고인민회의 의장), 5.2 룩셈부르크 그리스도교 사회인민당 출신 유럽의회 의원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중통(5/2)	외교	
	北 노동당대표단-루마니아사회주의당 대표단, 5.2 평양에서 회담 진행	중통(5/2)	외교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종업원들, 5.2 오수용(함경북도 당책)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궤기모임 진행	중방(5/3)	경제	
2011년 5월 3일 화요일	EU-北사이 관계발전(대사급 외교관계 수립(2001.5.14) 등)을 “세계의 다극화 실현, 東北亞 평화안정에 긍정적 기여”로 평가하며 “우호적인 세계 각국과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 강조	중통(5/3)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北 '리종혁'(조선-독일친선의원단 위원장)과 '슈테판 물러'(독일-조선의원단 위원장) 사이 회담, 5.3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중통(5/3)	외교	
	北 '제6차 건축미학토론회', 5.3 김기남(黨비서), 전하철(내각 부총리) 등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통(5/3)	사회 문화	
2011년 5월 4일 수요일	김정일, 조선인민군종합체육관(1만㎡) 개관식 참석	중통(5/4)	경제	
	北, 5.4 6.25參戰 영국軍 비행사('데스몬드 프레드리크 윌리엄 힌튼') 遺骸 「판문점」 통해 영국측에 송환	중통(5/4)	외교	
2011년 5월 5일 목요일	김영남, 5.5 駐北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로부터 신임장 접수 및 담화	중통(5/5)	외교	
	최영림 내각총리, 5.4~5 해산청년광산운흥제련소와 운흥광산기계공장 현지요해	중통(5/10)	경제	
	「조평통」 대변인, 5.5 南의 '北자유주간'행사 개막 및 '北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중통기자 질의 답변을 통해 "南민심과 사회여론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는 한편 공화국의 존엄을 훼손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 달성 속심"이라고 비난	중통(5/5)	대남	
	김부자의 함경남도 현지도 50돌 기념 보고회, 5.5 광범기(함경남도 당책/기념보고) 참가下 함흥대극장에서 진행	중방(5/6)	정치	
2011년 5월 6일 금요일	김정일, 평양시내 경공업공장들(평양방직공장·낙랑봉 화피복공장·봉화비누공장·평양수지연필공장) 현지도	중방(5/6)	경제	
	박의춘 외무상, 5.6 의례방문 駐北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와 담화	중통(5/6)	외교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5.6)] 南 정부의 '통일논의' 국제화 움직임을 "제도·흡수통일을 노린 위험한 망상"으로 비난하며 '연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 주장	중통(5/6)	대남	
	[北 조선중앙통신사 논평(5.6)] 我軍의 '해상사격훈련'(5.3/백령도와 연평도 일대/美軍장교 10여명 참관) 실시 관련 '대결소동을 통해 南北관계 개선 여론을 차단하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행위'로 비난	중통(5/6)	대남	
2011년 5월 7일 토요일	김정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平南) 현지도	중방(5/7)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5월 8일 일요일	신의주방직기계공장 창립 60돌 기념보고회, 5.8 이만 건(평북도 당책) 참가下 현지에서 진행	중방(5/9)	경제	
2011년 5월 9일 월요일	김정일, 김형직사범대학 예술소조공연 관람	중방(5/9)	경제	
	北 '신의주압록강유원지' 착공모임, 5.9 리만건(平北道 黨 책임비서), 최종건(平北道 인민위원장) 등 참가下 진행	중통(5/9)	경제	
	지재룡 駐中 北대사, 5.9 中國 국방부장 '량광렬'(梁光烈) 의례방문	중방(5/10)	외교	
2011년 5월 10일 화요일	北, 5.10 전국 각지 사찰들에서 「佛紀255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조국통일기원 북남불교도 동시법회」 일제히 진행	중통(5/10)	사회 문화	
	北 [인민무력부대변인], 5.10 담화를 통해 南 농협 전 산망마비 수사결과 '北의 소행' 발표는 "또 하나의 모략 날조극"이라고 배격 및 "남을 걸고드는 악습을 버려야 한다"고 반박	중통(5/10)	대남	
	<5.10 單選> 63주년 관련 "미국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라며 "미국의 反北정책과 보수패당의 외세의존, 동족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	중통(5/10)	외교	
	北노동당 대표단(김영일, 黨 비서)과 스웨덴 공산당 대표단('안데르스 칼손' 단장) 회담, 5.10 평양에서 진행	중통(5/10)	외교	
	박의춘 외무상, 5.10 美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美 비정부단체 '사마리탄즈 퍼스' 회장) 일행과 담화	중통(5/10)	외교	
2011년 5월 11일 수요일	「조평통」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5.11) [대통령 독일 순방시 對北제의 및 발언들(핵 포기 및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 '도전적 망발'이라며 극렬히 비난	중통(5/11)	대남	
2011년 5월 12일 목요일	김정일, 구장양어장(平北 구장군 소재) 현지지도	중통(5/12)	경제	
	'김영대'(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5.12 만수대 의사당에서 訪北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美 비정부단체 '사마리탄즈 퍼스' 회장) 일행과 담화	중통(5/12)	외교	
	訪北 라오스직업연맹·몽골전략연구소·스웨덴공산당·네 팔신문사 대표단 등, 5.12 금수산기념궁전 참배	중통(5/12)	외교	
	최영림 내각총리, 5.12 신임 니제르 수상에게 축전	중통(5/12)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5월 14일 토요일	[北국방위 검열단 진상공개장(3)], 5.14 “천안함연평도 포격도발,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까지 ‘北 연계설’을 왜곡·날조하는 것은 南北대결추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진상해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强辯	중통(5/15)	대남	
	김정일, “혁명사적사업에 기여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	중방(5/14)	경제	
2011년 5월 15일 일요일	최영림, 5.13~15 모내기가 시작된 ‘황해남도 영농실태’ 현지에서 요해	중통(5/17)	경제	
2011년 5월 16일 월요일	김정일, “우리(北) 식의 자소전극 생산기술 개발과 도입에서 모범을 보인” 발명총국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중방(5/16)	경제	
	제14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5.16~19) 개막식, 5.16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중방(5/16)	경제	
	黃南·北道, 平南·北道 등 전국 각지 농촌들에서 ‘본격적인 모내기’ 시작	중방(5/16)	경제	
	박의춘 외무상, 5.16 駐北 베트남 대사 ‘레 꽝 바’와 담화	중통(5/16)	외교	
2011년 5월 17일 화요일	김일성·김정일의 저작 발표기념 중앙보고회, 5.17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	중통(5/17)	사회문화	
	홍선옥(최고인민회의 부의장)-국제의회동맹 총서기(안데르스 운손), 5.17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 진행	중통(5/17)	외교	
	김영남, 5.17 駐北 슬로베니아 대사(두산 벨라)에게 신임장 접수 및 담화	중통(5/17)	외교	
	김영남, 5.17 카메룬공화국 창건 39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5/19)	외교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 즈음 ‘적십자활동 소개모임’, 5.17 「북적」·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대표단·적십자국제위대표단 공동주최로 진행	중통(5/17)	외교	
	김정일, 5.17 러시아연방 대외정보국 대표단(단장: 엠. 예.프라드코브 국장) 접견 및 만찬 마련	중통(5/18)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5월 18일 수요일	김정일, 咸南 용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 현지지도	중방(5/18)	경제	
	김영남, 5.18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의회동맹 총서기 ('안데르스 욘손') 일행과 담화	중통(5/18)	외교	
	△고산과수농장 현대화 완료, △6만 5,500여개의 규격 포전 정리, △원산만제염소 및 원산청년발전소 준공 등 “江原道가 살기좋은 고장으로 천지개벽되고 있다”고 선전	중통(5/18)	경제	
2011년 5월 20일 금요일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석탄전력·금속공업·철도운수부문)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며 “계속혁신, 계속전진” 강조	중통(5/20)	경제	
	김정일 저작(건축예술론) 발표 20돌 기념보고회, 5.20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	중통(5/20)	사회 문화	
	김영남, 5.20 中國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대표단(단장: 진중흥 부주석)과 담화 및 김정일에게 보내는 선물 접수	중통(5/20)	외교	
	김영남, 5.20 再選된 차드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5/20)	외교	
	최영림 내각총리, 5.20 再任된 쿠웨이트 내각수상에게 축전	중통(5/20)	외교	
	최영림 내각총리, 5.20 말리공화국 新任 수상에 축전	중통(5/20)	외교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金父子와 黨의 선군혁명영도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횡 타파,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를 이룩해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며 ‘최첨단돌파전’ 선동	중통(5/21)	경제	
	平南 평원군 원화협동농장·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등 “北部 고산지대를 제외한 전국 각지 농촌에서 모내기 시작” 보도	중통(5/21)	경제	
2011년 5월 22일 일요일	北 ‘만수대지구’ 건설 착공식, 5.22 창천네거리에서 진행	중방(5/22)	경제	
2011년 5월 23일 월요일	김영남, 5.23 에리트레아 독립 2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5/23)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5월 24일 화요일	우리 軍의 '연대급 합동상륙훈련'(5.16~22/경북 포항) 및 '韓-美연합해병대훈련' 계획(7월/백령도)을 “제2의 연평도 사건을 도발하기 위한 북침전쟁책동”으로 再次 비난하며 ‘즉각 중단’ 촉구	중통(5/24)	대남	
	김정일, '남부성' 할아버지(咸北 무산군 남산노동자구)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	중통(5/24)	사회 문화	
	美 국무성 대표단(단장: 인권 및 인도주의문제 담당 특사 '로버트 킹'), 5.24 “北-美간 인도주의 문제 협의차” 평양 도착	중통(5/24)	외교	
	김영남, 5.24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태국대사(‘피암 싸크 밀린타친다’) 신임장 접수 및 담화	중통(5/24)	외교	
2011년 5월 25일 수요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체코 駐在 北대사에 리광 일 임명	중통(5/25)	정치	
	‘희천발전소 룡림언제콩크리트치기 공사 700여일 만에 완공’ 등 “중요대상건설들이 빠른 속도로 진척, 매달 인민경제계획 초과수행 공장-기업소 증가” 선전	중통(5/25)	경제	
	김영남, 5.25 ‘아프리카의 날’ 즈음 아프리카동맹위 위원장에게 축전	중통(5/25)	외교	
2011년 5월 26일 목요일	박의춘 외무상, 5.25 ‘비동맹국가 외무상 회의’(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연설	중방(5/27)	외교	
	김정일, 5.20~26 호금도 주석 초청에 의해 중국 비공식 방문	중통(5/26)	외교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北, 미국국민 ‘전용수’(2010년 11월 反北 범죄행위로 체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석방	중통(5/27)	외교	
	김영남, 5.27 에티오피아 국경절 2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방(5/27)	외교	
	박의춘 외무상, 5.26~27 ‘블럭불가담나라’(비동맹국가) 외무상회의 참가 나미비아이란알제리캄보디아대표들과 各各 담화	중통(5/28)	외교	
2011년 5월 28일 토요일	李 대통령의 訪日時(5.21~22, 제4차 韓中·日 정상회의) ‘북핵문제 등 對北발언’을 “남북관계 파탄과 정세악화를 모면하려는 反北기도의 발로”라고 왜곡 비난	중통(5/28)	외교	
	김정일, 희천발전소 건설장 현지지도	중방(5/28)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北 중앙과 지방의 예술선전대들과 각 市郡 기동예술선 동대의 5.11~18기간 900여개 단위, 총 1,500회모내기 현장 경제선동 진행	중방(5/28)	경제	
	김영남과 박의춘 외무상, 5.28 아제르바이잔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과 외무상에게 各各 축전	중통(5/28)	외교	
	北양형섭(상임위 부위원장) 일행, 5.28 나이지리아 도착 및 대통령 취임식 참석	중방(5/30)	외교	
	김정일의 이번 訪中은 “조중친선의 공고성과 위력시위”라며 “두 나라는 수뇌회담을 통해 공동의 이익확인 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직결되는 전략을 조율했다”고 ‘訪中성과 및 北-中친선’ 代辯	조선신보(5/30)	외교	
2011년 5월 29일 일요일	김정일,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의 “訪中성과 축하” 음 악무용종합공연 관람 및 「감사」 전달	중통(5/29)	사회 문화	
	양형섭, 5.28~29 나이지리아남아공-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각국 대통령과 담화	중방(5/30)	외교	
2011년 5월 30일 월요일	[北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5.30)] “① 역적패당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을 것, ② 역적패당의 反北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돌입할 것, ③ 역적패당의 대결소동에 맞서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를 취하게 될 것” 위협	중통(5/30)	대남	
	리보익(김정일 증조모/1896.5.31) 생일 135돌 즈음 ‘항일혁명업적’ 선전	중통(5/30)	사회 문화	
	北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양강도 백암군/2002년 착공) 1호 발전소 조기조업에 이어 2·3호발전소 건설, 동시에 추진中	중통(5/30)	경제	
	訪中 北 ‘조선중앙방송委’ 대표단(단장 : 김팔용 부위원장), 5.30 中 奎人代 상무委 부위원장(‘로용상’)과 담화	중방(5/31)	외교	
2011년 5월 31일 화요일	최영림 내각총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현지 요해	중통(5/31)	경제	
	최고인민회의 상임委, 5.31 리무영(화학공업상) 내각 부총리 임명 ‘정령 제1674호’ 발표	중통(5/31)	정치	
	‘천년기 개발목표달성 정형에 대한 2010년 보고서’ 발표회, 5.31 박영숙(중앙통계국 부국장/연설) 및 駐北 유엔개발계획대표부 등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참가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중통(5/31)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김영일(黨 비서), 5.31 프랑스 조선연구그룹바 대표단과 담화	중통(5/31)	외교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5.31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총 6장 41조) 채택 정령 제1673호 발표	중통(6/2)	경제	
	나이지리아 대통령, 5.31 北친선대표단(단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과 담화	중방(5/31)	외교	
2011년 6월 1일 수요일	[北국방위 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6.1)] 北, “남측이 정상회담제안” 주장 및 거부 의사 表明	중통(6/1)	대남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 대변인 담화(6.1)] 南北 해외 실무접촉과 공동위원장회의 참가 不許 관련 “괴뢰패당의 책동을 올해 6.15통일 행사를 파탄시키고 우리 민족끼리의 북남선언정신을 부정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으로 규탄	중통(6/1)	대남	
	김영남, 6.1 駐北 가나 대사(헬렌 맘레 코피)에게 신임장 접수 및 담화	중통(6/1)	외교	
	김영남, 6.1 이탈리아 통일 150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6/1)	외교	
	김영일 黨 비서, 6.1 駐北 알제리 대사(하산 라베히)와 담화	중통(6/1)	외교	
2011년 6월 2일 목요일	김정일, 현대적으로 확장된 자연과학연구소강원도 고산과수농장 현지지도	중방(6/2)	경제	
	김정일과 김영남, 6.2 쿠바공산당 제1비서(‘라울 카스트로 루스’)에게 80돌 생일축전 발송	중통(6/2)	외교	
	김영남, 6.2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나이지리아 대사와 離任 담화	중통(6/2)	외교	
2011년 6월 3일 금요일	北 [軍총참모부 대변인 성명(6.3)] 남측 훈련장의 ‘김일성3대父子 사진 표적지 사용’을 “특대형 도발행위”라며 “쑤군의 군사적 보복행동 진입” 위협	중통(6/3)	대남	
	김정일, 6.3 라오스 주석 ‘쑤말리 싸이나쑤’ 생일 75돌 축전	중통(6/3)	외교	
	최영림 내각총리,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방문 및 “관계부문 일꾼협의회 조직” 등 현지 요해	중통(6/3)	경제	
	김영남, 6.3 프랑스 조선연구그룹 대표단과 담화	중통(6/3)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양형섭, 6.3 적도기네공화국 정부 수상 및 민주당 총비서와 담화	중방(6/4)	외교	
	기계공업부문의 5월 인민경제계획 124% 수행 및 전자공업성·黃北지방공업공장 등 전국 각지 공장-기업소, 5월 계획 완수	중방(6/3)	경제	
2011년 6월 4일 토요일	연평도·백령도 해병부대를 방문한(5.30) 국무총리의 對北 발언(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확고한 대비태세) 관련 “극도의 전쟁열고취, 군사적 도발과 북침전쟁을 선동하고 있다”며 “함부로 날뛰지 말라”고 위협	중통(6/4)	대남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인도네시아공화국 北 대사에 ‘이정률’ 임명	중통(6/4)	정치	
	전국 여맹일꾼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사적지 답사 및 맹세모임 진행	중통(6/4)	경제	
	6.18건설돌격대, 6.4 조병주(내각부총리)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궐기모임 고산과수농장에서 진행	중방(6/5)	경제	
	최영림 내각총리, 6.2~4 양강도內 경제사업 실태들 현지 了解	중통(6/7)	경제	
2011년 6월 5일 일요일	김정일, 대외건설자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	중통(6/5)	경제	
2011년 6월 6일 월요일	北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설비조립 완성에 이어 생산공정별 시운전 성과적으로 진행	중방(6/6)	경제	
	[조선노동당 중앙총 정치국 확대회], 6.6 ‘김정일의 비공식 訪中(5.20~26) 결과에 대해 통보 및 토의’ 등 진행	중통(6/6)	외교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6.6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를 내움(신설 추진)에 대하여」 ‘정령’ 제1693호 발표	중통(6/6)	경제	
	駐北 스웨덴 대사, 6.6 自國 국경절 즈음 궁석웅·오룡철(외무성·무역성 부상)·문재철(대외문화연락총 부위원장) 등 초대下 연회개최	중통(6/6)	외교	
	김영남, 6.6 스웨덴 국경절 즈음 同國 국왕에게 축전	중통(6/6)	외교	
	김형직사범대학 개건보수공사 착공식, 6.6 최태복(黨 비서)·강능수(내각 부총리)·량만길(평양시 인민총 위원장) 등 참가下 진행	중통(6/7)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6월 7일 화요일	김정일, 희천발전소건설지원자들에게 「감사」전달 김영대(최고인민회의상임위 부위원장), 6.7 베트남친 선대표단과 담화	중방(6/7) 중통(6/7)	경제 외교	
2011년 6월 8일 수요일	北 군인들,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답사행군대 출발모 임 진행 “희천발전소 건설에서 이룩된 기적과 혁신(2012년까 지 완공 가능)은 김정일의 세련된 영도력의 결과” 칭송 및 全민에게 “희천속도로 총공세의 박차를 가해 2012 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 제끼자”며 ‘총력투 쟁’ 독려 김영남, 박의춘 외무상 6.8 駐北 멕시코대사(‘마르따 오르띠스 데 로싸스’) 신임장 접수 및 담화 北, 동해지구에 연어·철갑상어 등 고급어족 연구와 양 어, 가공이 가능한 ‘종합적 양어연구소’ 설립	중방(6/8) 중통(6/8) 중통(6/8) 중통(6/8)	군사 경제 외교 경제	
2011년 6월 9일 목요일	北 [국방정책국 대표(베이징접촉 참석)], 6.9 중통 대답을 통해 우리 정부의 ‘南北 베이징비밀접촉’ 발표 를 “날조극 연출”이라고 주장 및 추가폭로 北 국가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黨·군로단체·성·중앙 기관 일꾼들, 6.9 희천1호발전소 룡림언제 참관 北-中, 6.8~9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와 라선경제무 역지대 朝中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상」착공식 진행 駐北 영국 대사, 6.9 自國 女王 생일 즈음 공석웅·오룡 철·한철(외무·무역·문화성 부상) 등 초청下 연회 개최 訪中 北 조선민주여성동맹 대표단(‘채춘희’ 부위원장), 6.9 인민대회당에서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주석 ‘진지립’ 과 담화	중통(6/9) 중통(6/9) 중통(6/9) 중통(6/9) 중통(6/10)	대남 경제 경제 외교	
2011년 6월 10일 금요일	北, ‘혁명적 군인정신’(김정일이 1996.6.10 안변청년 발전소 현지지도시 命名)은 “강성대국 건설의 사상정신 적 무기” 강조 및 “2012년 강성대국을 향한 대고조 진 군에서 인민군대의 선군혁명 위력 최대한 발휘”선동 北 노동당(‘최태복’ 黨비서)과 中공산당 대표단(단장: ‘리원조’ 黨 조직부장) 사이 전략대화, 6.10 만수대의사 당에서 진행 黨政간부들, 6.10 인민문화궁전에서 대외건설자들의 예술소조공연 관람	중통(6/10) 중통(6/10) 중통(6/10)	군사 외교 경제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북청군 용전과수농장 과수원 조성, △고원-함흥간 도로개건공사 완공, △금진강성천강 등지의 계단식 발전소 건설 등 '咸南道內 경제발전 모습' 선전	중통(6/10)	경제	
2011년 6월 11일 토요일	김정일, 인민군 제534군부대 등의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	중통(6/11)	군사	
2011년 6월 12일 일요일	김정일,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북창화력발전소 종업원 등에 감사	중방(6/12)	경제	
	김영남, 6.12 중국 공산당 대표단과 담화	중통(6/12)	외교	
	김영남, 6.12 러시아 국경절 즈음 同國 대통령('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 메드베제브')에게 축전	중통(6/12)	외교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김정일, 6.13 중국 공산당 대표단 접견 및 오찬 마련	중통(6/13)	외교	
	제14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6.13 청춘거리 배구경기관에서 진행	중통(6/13)	사회 문화	
2011년 6월 14일 화요일	北, 사회주의헌법 제139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7월24일 실시된다고 보도	중통(6/14)	정치	
	'6.15공동선언' 발표 11돌 기념 중앙보고회, 6.14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	중통(6/14)	정치	
2011년 6월 15일 수요일	黨과 국가 책임일꾼 및 무력정권기관중앙기관 일꾼 등, 6.15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제2기 제4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	중통(6/15)	군사	
	청년학생들과 농업근로자들, 6.15 최룡해(黨 비서)-리용철(청년동맹 1비서/경축보고) 등 참가下 '김정일 黨 사업시작(6.19)' 47돌 경축모임 촉촉 진행	중방(6/15)	경제	
	김영일(黨 비서), 6.15 이탈리아 좌익인민공산주의자당 국제부장 '알폰소 갈디' 일행과 담화	중통(6/15)	외교	
2011년 6월 16일 목요일	김정일, "경제선동대 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기동예술선동대원 등에 「감사」 전달	중방(6/16)	경제	
	駐北이란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6.16 전영진(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참가下 평양중신중학교에서 진행	중통(6/16)	외교	
2011년 6월 17일 금요일	[北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6.17)]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부동산을 보유한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 통고	중통(6/17)	대남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咸南 '고원-함흥도로' 개건확장공사 준공식, 6.17 최영림(내각총리)·김영춘(인민무력부장)·곽범기(咸南道 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진행	중통(6/17)	경제	
2011년 6월 18일 토요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駐독일 北대사 리시홍 임명	중방(6/18)	정치	
	「장애자의 날(6.18)」행사, 6.18 平南 성천농아학교에서 진행	중통(6/18)	사회 문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결정 제56호'(6.18), 道(직할시)·市(구역)·郡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지도위' 조직	중방(6/19)	정치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北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73호(6.20)] 南 정부가 '北 인권법'을 조작할 경우 "北 제도와 인민에 대한 공식 선전포고,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	중통(6/20)	대남	
2011년 6월 21일 화요일	"모든 일꾼-건설자들은 만수대지구 건설에서 맡겨진 건설과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라"고 분발 독려	중통(6/21)	경제	
	北, 6.21 道(직할시)·市(구역)·郡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 조직	중방(6/22)	정치	
2011년 6월 22일 수요일	北합영투자위원회 김지혁 연구원, 北의 투자환경에 대하여 "정치·법률·경제·세울적 측면에서 내적인 투자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외자투자유치는 2012년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해 대외경제활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	조선신보 (6/22)	경제	
2011년 6월 23일 목요일	李대통령의 「민주평통」 자문회의時(6.21) '統一발언'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을 "상스러운 망발"로 원색 비난하며 "흡수통일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위협	우리민족끼리(6/23)	대남	
	최영림 내각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평양방직기계공장, 평양신발공장, 강원도 천내군 시멘트공장, 평양 남새과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온실건설장 현지了解	중통(6/23)	경제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김정일, "모범적인선동원들"에게 「감사」전달	중방(6/24)	경제	
	"北-라오스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6.24) 37돌 관련 "라오스의 국토면적, 자원 등 경제분야, 정치노선" 등 상세히 소개 등 연대성 표명	중통(6/24)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6월 25일 토요일	「조평통」대변인, 중통기자 질문에 대답(6.25) “남측이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지탱해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남북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도발적 망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제조건’을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중통(6/25)	대남	
	김영남, 6.25 흐르바쓰까공화국(크로아티아) 대통령에게 국경절 즈음 축전	중통(6/25)	외교	
	박의춘 외무상, 6.25 슬로베니아공화국 외무상에게 국경절 즈음 축전	중통(6/25)	외교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 6.25 평양체육관에서 진행	중방(6/26)	사회 문화	
	최영림 내각총리, 6.23~25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咸鏡北南道 공업부문 사업 현지방문 요해 및 ‘협의회’ 조직	중통(6/27)	경제	
2011년 6월 26일 일요일	北, 태풍5호 ‘메아리’의 북상으로 ‘태풍경보’를 발령하고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철저한 피해대책 수립” 당부	중방(6/26)	사회 문화	
	北, △만수대지구 살림집 기초굴착공사 완료 및 기초콘크리트 작업 50%계선 돌파, △희천발전소 건설자들, 용림언제-전천간 도로건설에 주력 등 ‘對內 경제소식’ 보도	중방(6/26)	경제	
	김영남, 6.26 지부티공화국 독립 34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	중통(6/26)	외교	
2011년 6월 27일 월요일	김정일, 6.27 故김창익(김책공업종합대학 실장) 빈소에 화환 전달	중통(6/27)	정치	
	北 내각사무국 등 성·중앙기관 돌격대원들의 백암군(양강도)에 18동의 “현대적인 돼지목장 완공 및 추가건설”	중방(6/27)	경제	
	최영림 내각총리, 6.27 핀란드수상에 임명된 ‘위르끼 까따이넨’에게 축전	중통(6/27)	외교	
2011년 6월 28일 화요일	[北 정부 대변인 성명(6.28)] 강원도 철원군 我軍 백골부대를 비롯한 전방부대들에서 “존엄을 중상 모독하는 구호를 내걸고 반공화국 적대감을 고취했다”며 “전군·전민·전민족적 보복성전” 威脅	중통(6/29)	대남	
	김영남, 6.28 ‘제17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 수뇌자회의’ 개최 관련 축전 발송	중통(6/28)	외교	

날짜	내용	보도일자	구분	비고
2011년 6월 29일 수요일	[北조평통, 청와대에 보내는 긴급통지문 공개(6.29)] ‘北비난구호’ 관련 “즉각 사죄와 주모자 엄벌, 모든 구 호 철폐 요구” 및 도발행위 방임시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과 무자비한 징벌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 위협	중통(6/29)	대남	
	北, ‘금강산지구 內 남측자산 정리 접촉’(6.29) 관련 “남측기업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統一부가 北-남측기업간 접촉을 차단해 무산되었다”며 責任轉嫁	우리민족끼 리(6/29)	대남	
	최영림 내각총리, 6.29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강철생 산정형 현지요해 및 ‘협의회’ 소집	중통(6/30)	경제	
2011년 6월 30일 목요일	[조선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6.30 중통 對 답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관련 협의(금강산) 決裂 관련 “統一부의 방해책동 때문”이라고 책임 轉嫁	중통(6/30)	대남	
	김정일, 중국 공산당 창건(7.1) 90돌 즈음 ‘후진타오’ (胡錦濤) 국가 주석에게 ‘北-中친선 不變’ 강조 축전 발송	중통(6/30)	외교	
	駐北 中대사 ‘류흥재’, 6.30 김영남·최영림(내각총리)· 김기남(黨비서/연설) 등 초청下 自國 공산당 창건90돌 경축연회 개최	중통(6/30)	외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남아프리카공화국 駐在 北 대사 조영만 임명	중통(6/30)	외교	
	김영일(조선관광총국 부원), 작년 訪北 관광객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며 上海↔평양 直航運航(7~10월)과 3 國순환선관광 시작(4월, 北-中-러) 및 美유럽관광객 증가 등 ‘올해 관광객誘致 작년능가’ 豫見	조선신보 (6/30)	경제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통일정세분석 2011-09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1년 8월
발행일	2011년 8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